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30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63 1982년 6월 3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ne 30,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점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불황대처 긴급예산안

주택구입비 $3천씩
노년보조비 인상억제

(오타와)알란·매케큰재무장관은 28일밤 연방공무원의 임금인상을 연6%로 묶고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올리는등 경기회복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매케큰장관은 불황이 캐나다경제를 짓뭉개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연방정부의 금년도 재정적자를 196억달러로 예상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이자율을 올리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이번 예산안에 의하면 --

◉매년 4월말까지가 시한인 소득세 보고중 개인공제 면세조항(Personal Exemption)은 83년에 6%, 84년에는 5%의 인상만 허용한다 정부는 73년이후 개인공제 면세점을 매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인상조정했다. (5월 인플레는 11.8%)

◉일반기업체(Private Sector) 종업원들의 임금인상율은 82년에 6%, 83년에 5%로 자발적으로 제한한다.

◉국회의원, 국영기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연방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을 금년에 6%, 83년에 5%로 묶는다.

◉작년 11월 예산안에서 발표된 이자소득면세조처등의 시행을 83년까지 연기한다.

◉고용창출을 위해 1억달러, 경제개발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입하고 평생 처음으로 집을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보조금으로 총 2억달러를 지출한다.

◉종전에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자동인상되던 노인생계비보조(OAS)및 자녀수당(훼밀리·얼라우언스)을 줄인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처.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통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임금을 통제해서 노동비가 절약되면 자동적으로 물가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안은 금년도 실업률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비행기요금, 계란값등은 계속 통제하나, 오일등 에너지 값은 이번 통제에서 제외되었다.

트뤼도수상은 30일 연방·주수상 비상회의에서 주정부공무원의 임금 통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명시된 적자는 보수당, 신민당의 공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다.

한편 야당 보수당의 조·클락당수는 "200억달러 적자예산으로 국민의 신뢰감을 얻는다고 기대하지 말라. 이 예산은 국민을 속이려는 조처이다"고 비난했다.

신민당의 브로드벤트당수는 노년보조금 인상제한등은 중류이하 계층의 소비를 위축시켜 오히려 경기를 감소시키며 3000달러 주택보조금은 집값 인상만 부채질, 주택업자들에게만 이득을 준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CA) 현영일씨의 예산안해설이 2일자부터 연재된다.〉

—주요골자—

◉국회의원, 각료, 일반공무원, 국영기업체 종사원등 모든 연방정부 종사자의 임금인상률을 82년에 6%, 83년에 5%로 제한한다.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되던 극빈자생활비보조(웰훼어), 노년생계비보조, 자녀수당(Family Allowance), 공무원연금등의 인상을 금년에 6%, 83년에 5%로 억제한다.

◉경기진작을 위해 작년 11월 정기예산안중 업계의 비난을 받던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투자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

◉총 7억5천만달러를 고용창출에 투입한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우선 혜택을 받는다.

◉주택, 건설경기진작을 위해 주택보조금을 준다. 정부는 현재 신축중인 새 집을 금년말까지 사는 무주택자(처음 집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3천달러를 무상으로 보조한다.

◉중소기업체가 투자할 때의 이자부담을 4%가량 덜어주기 위해 4억달러를 배정한다.

◆예산안에 맹렬공격을 퍼붓는 브로드벤트신민당 당수와(왼쪽) 조·클락 보수 당당수.

친구초청 해외여행
7월부터, 백만원 공탁제

(서울29일=연합)해외여행 문호를 개방키로한 한국정부는 7월1일부터 친지초청 여행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은 삼촌이내의 친족의 초청여행만 가능했다.

새로 적용되는 여권시행규칙에 의하면 친지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여권을 받기 위해 100만원을 정부에 공탁해야 한다. 친지초청여행자는 귀국후 6개월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재출국할 수 없다.

◆맥케큰재무장관(왼쪽)이 28일밤 의회에서 긴급예산을 발표한 직후 각료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악수 하고 있는 크레치앵법무, 가운데는 트루도수상. 자유당의 정치생명을 내걸고 발표된 새 예산안은 경기회복에 번죽만 울릴 뿐 근본대책은 못된다는 평을 받고있다.

차이콥스키 음악경연

—위니펙거주 피아니스트—
문익주 준결 진출
세계적 권위의 음악올림픽

위니펙교민 피아니스트 문익주(27)씨가 차이콥스키음악경연대회에 출전, 준결승까지 진출했음이 밝혀졌다.

음악계의 올림픽이라고 일컬어지는 차이콥스키대회는 모스코바에서 4년마다 한번씩 열리며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첼로 4개부문으로 나뉘어져 약 한달동안 경연한다. 금년 대회 기간은 6월10일~7월6일. 58년에 처음 시작됐다.

◆문익주씨.

차이콥스키대회는 소련이 주최하는 음악경연대회로 소련출신음악인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나라 연주자들의 입상은 더욱 인정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줄리어드음악학교에서 수학중인 문익주씨는 87명의 출전자중에서 60여명을 추려내는 제1차전을 지난 11일 무난히 통과했고 결승진출여부는 30일 확정된다.

이름있는 대회니만큼 심사과정도 까다로와 출연자는 각기 1시간동안 작은 리사이틀을 가져, 대개 6,7곡정도 연주, 역량을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캐나다인으로 이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은 78년대회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퀘벡의 피아니스트 안드레·라플란트 뿐이다.

한국인으로는 정명훈씨가 74년 대회에서 피아노부문 2위에 입상한 바 있다.

특히 금년대회에는 캐나다 바이올린연주의 거장으로 최근 토론토심포니 악장이 된 스티븐·스태릭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지난 3월 토론토 세인트-로렌스홀에서 베토벤의 소나타 31번 "템페스트",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5, 차이콥스키의 주제와 변주 F장조 Op.19등을 연주, 무르익은 테크닉을 아낌없이 보여준 문씨는 55년 전주태생. 유영수·정진우 교수에게 사사받다가 69년 이민, 줄곧 위니펙에서 피아노에 정진했다.

금년도 차이콥스키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한 캐네디언으로는 첼로의 데스몬드·회비과 문씨 둘 뿐으로 캐나다 음악계가 문씨에 거는 기대도 크다.

문씨는 80년 몬트리얼 국제경연대회 수상, 76년 캐네디언 음악경연대회 1등, 77년 제네바국제음악경연대회 동메달, 78년 미네소타·오케스트라·영·아티스트경연대회 1등, 81년 뉴욕의 지나·바하우어기념 경연대회 1등 등 수상경력이 다채롭다.

위니펙심포니, 몬트리얼심포니, 내쉬빌·아츠·센터오케스트라, 캘거리 필하모닉, 미네소타 오케스트라등과 협연했고, 위니펙에서는 레오나드·이샥 교수에 사사받았다. 73년 필라델피아의 커티스음악학교를 거쳐 80년 인디애나대학에서는 Gyorgy Sebok 교수밑에서 공부하면서 음악학사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줄리아드에서는 사샤·코로드니츠키교수밑에서 수학중. 마니토바대 사회학교수로 있는 문승규씨의 장남으로 아직 미혼이며 아버지에게서 배운 한문실력으로 노자와 장자를 읽는다는 학구파. 이런 그의 성품은 "아직은 배우는 연주하도"라고 자신을 평하는 데서도 드러나며 그의 성실한 연주태도·신중한 연주·곡목 선정등에서도 나타난다.

실질임금 인상
한국 근로자들

(서울29일=연합)한국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 3년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금년부터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부보고서는 28일 금년 첫 3개월동안의 한국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은 월평균 23만7천224월(미화 321달러)으로 18.1%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9.6%로 증가,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이 7.7%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작년의 7만6천698원에서 금년에는 8만2천628원으로 올랐다.

◆알 림◆

1일은 캐나다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캐나다·데이」(도미니언·데이) 공휴일이므로 이날 본사는 휴무합니다.

이에 따라 1일자 토론토 현지판은 발행하지 않고, 〈한국일보〉 본지(한국판)는 1·2일자(목·금요일), 3·5일자(토·월요일)를 각각 합쳐서 발행합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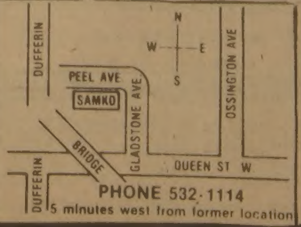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SAMKO SALES
(Closeout Specialists)
여러종류의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의 남은 많은 상품을 인수하여 최저가격으로 소매상에게 팝니다. 특히 유명메이커 장난감과 선물용 제품·학용품·HOUSE WARES도 도매가격보다 훨씬싸게 공급합니다.
꼭한번 들러주십시오. 놀라실 것입니다.
여름 STORE HOURS : 월·화·수요일만 OPEN합니다.
(오전9시~오후4시30분)
※새장소로 옮긴후부터 (82년7월5일(월)) 여러분께 개장합니다.
이 광고를 가져오면 멤버·카드를 드립니다. 또는 한국일보에 멤버카드를 요청하면 됩니다
CASH·CHARGEX·MASTER CHARGE
NO PERSONAL CHEQUES
WHOLESALE ONLY(ADULTS ONLY)
어린이 절대 출입금지
1230 QUEEN ST. W. (Near 더프린)
☎ : 532-1114



OUR NEW ADDRESS IS 1230 QUEEN ST. WEST WITH STORE ENTRANCE ONE BLOCK NORTH AT 11 PEEL AVENUE

IATA
8.15경축 모국방문단 모집
출발및 귀환 자유 (8.15 경축식 참석및 관광)
등록마감: 7월 15일까지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사랑으로 소외·굶주림 치유"

테레사수녀 토론토강연 대성황

"나는 성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에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랑이라는 이름안에서 하고 있다.", "그녀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금세기를 통해 이같은 인간을 다시 보기 힘들 것이다."

5척도 채 못되는 작은 키에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을 한 71세의 유고슬라비아태생 할머니가 2만여 군중들의 가슴속에 감동의 불꽃을 일으켰다.

27일 토론토 바시티 아리나(Varsity Arena)에는 하오 3시부터 가톨릭 지역봉사단체 청년단(the Youth Corps)이 주최하는 평화운동대회에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빈민촌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테레사 수녀가 연사로 참석, 「예수와 세계평화」 제목의 강연을 벌였다. 테레사수녀는 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호소력이 가득담긴 조용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테레사수녀의 명성은 $3씩하는 입장권이 이틀전인 25일 거의 매진된 사실에서도 알수 있었다.

테레사수녀의 카리스마적인 힘은 열렬한 웅변도, 수려한 얼굴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외관은 보잘것없는 이 할머니의 겸손과 헌신 그리고 고결한 행동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사랑은 가정에서 비롯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

욱 소외감의 쓰라림을 보았다"는 그녀는 인공유산이 가장 명백한 예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처 태어나지 못한 작은 생명이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라고 하며 "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에게 이런 행위(인공유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자식을 원치 않는다면 내게 달라. 내가 기르겠다"고 인공유산의 부당성을 신랄히 지적했다.

토론토로 화제를 돌린 테레사수녀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 알고 있는가? 그들은 빵 한조각 때문에 굶주리지는 않을지 모르나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아주 무서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전쟁의 재난을 사전에 피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어제는 가버리고 내일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다. 예수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처럼 평화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주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며 이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테레사수녀는 1931년 인도 다아질링에 있는 토레토수녀원에 처음 입회, 그곳에서 부유한 집 청년들을 가르쳤다. 테레사(원뜻: 작은 사람)라는 이름도 이때 얻었다.

1948년, 그녀는 캘커타에서 가장 불쌍한 나병환자, 거지및 각종 병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이 수녀원을 떠났으며 "자선의 사절"(Missionaries of Charity)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빈민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자선의 사절"은 20개국에 퍼져있으며 2천여명의 수녀들이 일하고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테레사수녀는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며 "먼저 가정안에서 사랑, 화평, 정의를 실현하고 점차 이웃에 확대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을 요청하라고 촉구하며 "많은 어려움과 마음속의 극심한 고통이 기도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테레사수녀는 얼마전 토론토에서 사망한 캘커타태생의 여인이 유언으로 「자선의 사절」에 바치기로 한 $16만5천의 수표를 기증받았다. 그녀는 1달이상 북미를 순회하며 강연과 「자선의 사절」 지부를 방문하고 있다.

◆테레사수녀와 캐톨릭단체인 청년단 대표 로버트·모간이 평화의 상징으로 흰새를 날리고 있다. 27일 토론토 바시티스태디엄에 모인 2만여명의 청중에게 테레사수녀는 세계평화와 사랑을 심기위해선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영수의원 간통죄로 구속

(서울29일=연합)국회의원 한영수(47)씨가 간통혐의로 구속됐다고 서울지방검찰청이 발표했다.

야당 민한당소속인 한씨는 지난 2월 김모부인(35)과 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부인의 남편 고발로 구속됐다.

한국법에 의하면 간통죄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영수의원은 미국무성 초청으로 방미중인 지난 22일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정당기능과 언론기능의 회복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장여인사건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국정조사권발동등으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원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했음을 비난했었다.

다이애나양 아기이름 결정
윌리엄·아더·필립·루이스로

찰스황태자와 황태자비 다이애나는 아들의 이름을 윌리엄·아더·필립·루이스(William Arthur Philip Louis)로 하기로 결정했다.

왕위계승서열 2위의 새 아기를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기가 태어난 뒤 계속 영국민의 관심을 끌었는데 「조지」 혹은 「제임스」란 이름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유력한 후보였었다.

아이의 이름중 루이스는 5년전 에이레공화군(IRA)의 폭격으로 숨진 찰스황태자가 가장 좋아한 삼촌 루이스·마운트배튼경의 이름을 딴것이며, 아더는 가장 영국적인 이름이며, 필립은 찰스황태자의 아버지인 에딘버러공의 이름을 딴 것이다.

6일 상오1시 개기월식

달, 106분간 지구 그림자속에

가장 아름답고 오묘한 천체의 장관중의 하나인 개기월식을 6일밤 구경할 수 있게 됐다.

이날밤 달은 새벽 1시33분경 지구의 그림자 중앙으로 들어가 106분(1시간46분)동안 머문다. 이것은 200년만에 가장 긴 월식이다.

캐나다천문학술원 토론토센터의 이언·맥그리그회장은 "전체적으로 이날 달은 매우 아름다운 검붉은 빛깔을 띄울 것이다"고 말한다.

그는 "맨눈으로도 명확히 보이나 쌍안경이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되며, 망원경으로는 아주 자세히 멋진 광경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붉은 색은 대기를 통해 햇빛이 굴절해 들어온 것이 반사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월식(75년이래 처음)은 멕시코와 남태평양 일대의 화산폭발로 인한 대기중의 화산진으로 조금 다른 빛깔을 띨지도 모른다.

맥그리그씨는 달이 검붉은 색을 띨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거무스름한 회색이나 갈색이 될것이라고도 추측한다.

올해는 특별히 일식과 월식의 풍년으로 지금까지 4개의 일식, 3개의 월식이 있었다. 이같은 일은 앞으로 5세기동안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개기월식의 특징은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날 지구는 태양에서 가장 먼곳에 떨어져 있어 지구의 그림자는 가장 길고 클 것이다. 둘째, 달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천천히 지구둘레를 움직인다. 올해는 음력으로 윤달이 끼었다.

맥그리그는 월식초망자들에게 7월5일 자정직전의 밝은 보름달과 새벽 1시30분부터 나타날 장관을 서로 비교해 보라고 이른다.

달이 완전히 지구의 그림자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새벽 2시28분부터 시작되어 새벽 4시24분까지 계속되며 달이 완전히 지구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시각은 새벽 5시29분이다.

제5계절 가진 자의 책임

김 요 환(목사·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목사.

최근 조국에서 들려온 몇가지 소식은 먼 이국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서있는 경찰관의 손에 무고한 양민 수십명이 살해되었다는 것과, 미모를 갖춘 한 중년여인의 부정어음대출 사기행각에 국가경제가 비틀거릴 정도로 사회에 던진 충격파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해외토픽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으례히 관계 장관들의 인책사임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나,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론 문제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태까지 이끌어 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곪아터진 상처를 치료한답시고 상처부위를 물로 씻어내고 소독약을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방법과 같다. 곪아터진 상처는 아무리 아프더라도 힘껏짜서 아예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근본치료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 조국의 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등 모든 방면에 만연되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독소의 근본적인 요인을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날의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독소의 근본적인 요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수의 가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제일먼저 권력을 가진자의 책임이다.

공산독재국가나, 전제주의를 정체로 표방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정체로 한 국가라고 한다면 문자그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주인이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공복인 것이다. 공복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성실하게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주인을 무시하고 맡겨진 권력을 남용하여, 주인을 압제하려는 권력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책임을 회피한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 다음엔 금력을 지닌자의 책임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가 재물을 모으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사회란 독불장군이 없는 법이다.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기까지에는 내 이웃과 사회로부터의 도움과 지원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비록 내가 땀흘려 모은 「부」라고 할지라도 그 혜택은 다시 이웃과 사회로 환원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유하게된 사람일지라도 자기 혼자만 배부르겠다는 파렴치한은, 그가 모은 물질과 함께 몰락하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하물며 불로소득하려는 자의 말로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끝으로 아는자의 책임이다.

즉 지식인은 민중을 깨우치고, 선도하고, 위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지식인이 자기의 책임을 잊고, 권력과 금력에 아부나 하며, 필요이상의 우월감을 가지고 민중을 얕볼때, 그가 지닌 지식은 그를 파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의한 자 앞에서 지식인은 사육신까지 될 용기는 없더라도, 최소한 생육신이 될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중의 등불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가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조국은 좀더 밝고 희망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아가라 축구대회

(나이아가라)지난 27일 나이아가라한인회(회장 이중근)는 제1회 총영사배축구대회를 가졌다.

세인트·캐서린팀대 웰렌드·토롤드 연합팀의 대전은 4:4 동점을 이루어 승부차기로 들어가 웰·토연합팀이 2:1로 승리, 총영사배를 차지했다.

이날 번외경기로 벌어진 어린이축구에서는 2:1로 세인·캐서린, 여자부 경기는 1:1 동점으로 끝났다.

축구경기외에도 각종오락·단체및 개인경기로 저녁 8시후까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토론토에서는 강신봉 연합회이사장, 박영철 부총영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교민 소매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장 하는 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계특별할인 대매출하오니 이 기간을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7월5일(월)~7월17일 (토) 〈2주간〉

품 목

- ◉ POP종류 COKE PRODUCT $6,79
  - PEPSI " $6,79
  - 7-UP " $6,79
  - WILSON " $5,79
  - CANADA DRY " $5,79
  - SUN PAC " (쥬스) $8,59
  - SUN SQUEEZE " (쥬스) $7,39
- ◉ ROYAL TOILET TISSUE(2 PLY) 24's $16,99
- ◉ ROYAL FACIAL TISSUE (3 PLY) 36's $27,99
- ◉ ROYAL FACIAL TISSUE (3 PLY) 72's $31,99
- ◉ ROYAL MAN SIZE $29,99
- ◉ ROYAL PAPER TOWEL $23,99
- ◉ KLEENEX FACIAL TISSUE 36's $33,89
- ◉ KLEENEX FACIAL TISSUE 72's $35,85
- ◉ KLEENEX HI-DRY TOWEL 24's $18,95
- ◉ KLEENEX POCKET SIZE 12's $16,50
- ◉ KOTEX REG,-SUPER SUPER PLUS 12's $29,89
- ◉ KOTEX NEW FREEDOM MAXI 12's $28,99
- ◉ KOTEX NEW FREEDOM SUPER MAXI 10's $29,89
- ◉ TEMPAX REG, SUPER, SUPER PLUS 10's $11,99
- ◉ TEMPAX REG, SUPER, SUPER PLUS 40's .... EACH $3,29
- ◉ PLAY-TEX TAMPON DEOD, REG, SUPER .... EACH $2,09
- ◉ PLAY-TEX TAMPON NON-DEOD REG, SUPER .... EACH $1,89
- ◉ PLAY-TEX MINI-PAD 10's .... EACH $0,95
- ◉ PLAY-TEX MAXI-PAD 10's .... EACH $1,19
- ◉ PLAY-TEX HAND GLOVES, Small, Medium, Large(1 DZ) $10,59
- ◉ BIC LIGHTER .... EACH $0,70
- ◉ D-JEEP LIGHT (Ad,) / PLAYERS FILTER / PLAYERS LIGHT / PLAYERS MATINEE $1,09
- ◉ BEE CARD .... (DZ) $19,95
- ◉ BICYCLE CARD .... (DZ) $18,95
- ◉ BLACK GABAGE BAG .... (Case) $18,95
- ◉ BOOK MATCHES $17,95
- ◉ LYPSYL $6,65
- ◉ LIGHT BULB(40W, 60W, 100W) $11,39
- ◉ ROWN-TREE MULTI-PAK(Reg×4) (AERO, SMARTIES) (KIT KAT, COFFEE CRISP) $9,89
- ◉ HERSEY-BAR(모든 종류) 36's $8,59
- ◉ NEILSON BAR(모든 종류) 36's $10,59
- ◉ LIFE SAVER (모든 종류) $4,59
- ◉ BREATH SAVER (모든 종류) $4,09
- ◉ CARE FREE(모든 종류) $3,49
- ◉ B,Y, (모든 종류) Sugarless 제외 $3,39
- ◉ HUBBA BABA DEAL $16,95
- ◉ HUBBA BABA (모든 종류) $4,49
- ◉ DUET (P,N,) RAISIN $4,98
- ◉ Y,S,-lic(Red, Black) 5센트 $2,09
- ◉ Y,S,-lic(Red, Black) 10센트 $3,39
- ◉ Y,S,-lic(Red, Cigar) 10센트 $2,99
- ◉ BUBBLE KING DEAL $16,95
- ◉ SURPRISE BAG 24×25센트 $4,69
- ◉ KISKO 5센트 $3,19
- ◉ KISKO 10센트 $7,59
- ◉ KISKO 35센트 $4,19
- ◉ LOLA (모든 종류) $4,79
- ◉ ABC DETERGENT 12×3 l $21,59
- ◉ ABC DETERGENT 24×1,5 l $23,59
- ◉ SUN LIGHT 12×3 l $23,59

주식회사 신의상사
SINCERE TRADING CO. LTD.
116 TYCOS DR. TORONTO
전화 : 789－7544·5·6·7

〈소 론〉

인류종말이냐, 핵군비 축소냐③

한인연합회 이사장 **강 신 봉**

지금으로부터 37년전, 그러니까 1945년8월6일 아침 8시15분, 인류를 파괴시키는 첫번째 원자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당시 40만명의 인구를 가진 히로시마는 단번에 7만5천명이 즉사하였고, 약 15만명이 중상을 입었기에 과반수이상이 파괴되는 참상을 입었다.

그 원자탄의 크기는 약 13톤의 소형이었지만, 오늘날 대륙간 탄도탄에 상비된 중형싸이즈의 1메가톤급 원자탄은 히로시마 원자탄의 80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소련에 설치된 수백개의 대륙간 탄도탄들은 이 북미와 유럽의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및 산업시설을 겨냥하고 있고, 적어도 그중에 2개는 캐나다의 토론토시와, 웰랜드운하및 해밀톤시를 파괴시키도록 조준되었다고 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떨어진 원자탄의 비극을 회상하며, 그의 80배나 되는 크기의 원자탄이 토론토에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할때 지극히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엄연한 현실적인 사실이기에 망상으로 돌려버릴수 만은 없을것이다.

물론 그것도 어느시간에 핵폭단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사상자수가 달라지겠지만, 가능한 한 이면 피해를 적게보는 시간부터 생각해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1메가톤의 핵탄두가 토론토에 떨어진다면

일과의 퇴근시간이 지난 후, 초저녁쯤에 1메가톤의 원자탄이 토론토시청에 적중되었다고 가상한다면, 적어도 토론토 인구의 ¼인 60만명이 사망할것이고, 약80만명이 중상을 입게될 것이다. 불행히도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정오에 떨어진다면 약75만명이 사망하게 되고, 백만이상이 중상을입게 된다.

사실상 중상이라고 하지만 치료 불가능이므로 연차적인 사망이 증가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토론토의 인구과반수가 1메가톤의 원자단에의해 파괴된다는 결론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다트로이트에 있는 U.S.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와 캐나다의 Physicians for Social Reform이란 두 전문기구에 의하여 분석된 것이다.

지도에서 보여지는 바와같이 메가톤급의 원자탄이 토론토시청에 투하되었다고 가상해 볼 때에 그 피해상황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1)원자탄 폭발진원으로부터 1.5마일 구역내의 모든건물은 용해 또는 미립자로 환원되며, 시속 600마일의 핵풍에 의해 기화되어 버릴 것이다. 동쪽으로는 Don Valley Parkway, 북쪽으로는 Bloor, 서쪽으로는 Bathurst, 남쪽으로는 온타리오호수까지가 이지역에 해당되며, 혹시 지하콘크리트속에 생존자가 있다 하더라도 파괴된 건물이나 파편에묻혀 몇초간 핵진을 마시다가 죽게될것이다.

2)진원으로부터 2.9마일 반경의 구역이다. 시속 250~300마일의 핵풍이 일고, 역시 생존자는 없을 것이다. Janes, St.Clair, Landsdowne의 지역으로 약50% 인구는 폭발하는순간 사망할 것이고, 약 30%는 화상에의해 사망하며 나머지 20%는 파편에맞아 죽게될 것이다.

3)핵진원에서 4.3마일되는 구역으로, Woodbine, Eglinton, Keele까지라고 보겠다. 시속 160마일의 핵풍이 일고, 거의모든 건물이 이 지역까지 핵열이나 화재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 될 것이다. 간혹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나 차라리 죽는이 만도 못한 중상, 또는 중화상을 입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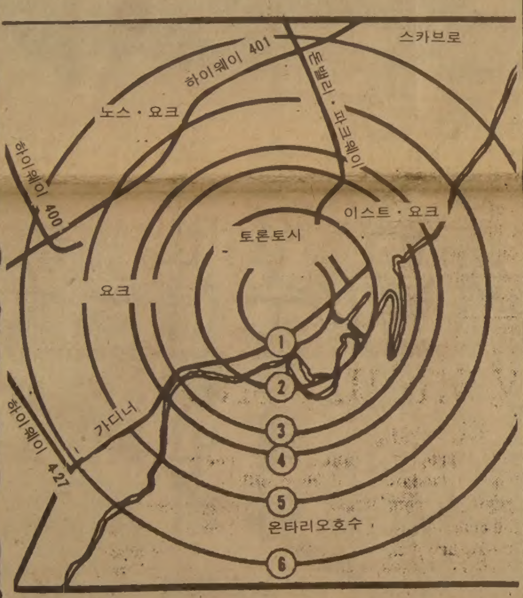
4)다음은 4.9마일까지의 구역으로 Main, Glencairn, Jane St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건물은 반쫌 파괴되고, 노상에 있던 사람들은 3도의 화상을 입게 되나, 대개가 치료불능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다.

5)진원에서 6.3마일의 구역으로 Victoria Park, Lawrence, Royalyork까지의 구역이다. 시속 100마일의 핵풍으로 인해 벽돌집, 목조건물은 일부가 파손될 것이고, 3도 화상을 입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6)핵진원으로부터 8.5마일까지로 보는데, Midland, Sheppard, Kipling까지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할 것이나 2~3도의 화상을 입게되고, 건물의벽돌, 미사일의 파편등이 이곳까지 날아와 부상자가 꽤 많아 질 것이다.

이와같은 극심한 재앙이 닥칠때에 부상자는 스스로 치료하지 못하면 죽는길밖에 없다. 토론토 중앙에 집중된 병원은 모두 파괴되고, 아울러 5,000명의 의사도 사망하겠기에 변두리에 있는 병원에서의 치료란 생각도 못할 일 일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환자가 화상 아니면 파편에의한 부상일경우인데, 그에 따른 시설, 혈액들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중상자는 수일내에 죽게될 것이다.

오늘날 미·소의 강대국이 이 지상에 저지르는 죄악은 서로가 힘자랑하는 그 자체보다도 세계의 인간을 이러한 공포속에 떨게하는 협박의 죄악인 것이다. (계속)



✣원자탄이 떨어질 경우를 가상한 약도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7>

冷血 ①

가을비 촉촉히… 다시 사나이는 호텔로

그해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그여름도 가고 가을이 왔다.

9월하순 어느날, 가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있는 정오경, 보스턴백을 든 한 사나이가 국내최대의 호화호텔인 W호텔의 정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바바리코트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사나이였다. 그는 로비를 가로 질러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더블룸을 하나 주시오.』

그는 숙박카드의 성명란에 「毛世」라고 이름을 적었다.

『2515호실입니다.』

그는 열쇠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에서 내려 프랑스요리 전문식당으로 들어갔다.

혼자서 2만5천원짜리 프랑스요리를 시켜놓고 앉아 1시간반에걸쳐 그것을 천천히 먹어치웠다.

식사를 끝낸 그는 돈한푼 내지않고 청구서에 사인만 했다. 카운터의 여직원은 손님이 내민 숙박확인카드의 기재사항대로 청구서에 호실넘버와 이름이 틀림없이 적혀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에게 미소의 답례를 보냈다.

점심을 든든히 먹고난 그는 25층으로 올라갔다.

잠시후 그는 25층 15호실에 여장을 풀었다.

朴 男 그림

창가에 서니 서울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담배를 비벼끄고나서 수화기를 집어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곧 시 신호가 떨어지면서 앳된 여자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문자씨 댁이죠?』

『네, 그런데요.』

『좀 바꿔줘요.』

『어디신가요?』

『잘아는 사람이니까 바꿔줘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깨워요. 중요한 전화가 왔다고.』

『깨우지 말라고 그러셨는데요.』

『아가씨는 가정부인가?』

『네…。』

『목소리가 예쁘군. 급한 전화니까 빨리 깨워요.』

『누구시라고 그럴까요?』

『그런건 묻지말고 빨리 깨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잠을 깨운데 대해 가정부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후 그녀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안하무인의 거친 음성이다.

『낮잠을 깨워서 미안합니다.』

『누구세요?』

『박문자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모세라고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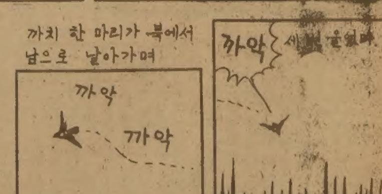
—제1회 한국일보—
어린이야구(소프트볼) 대회
1982년7월3일(토) : 코로네이션파크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 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특별할인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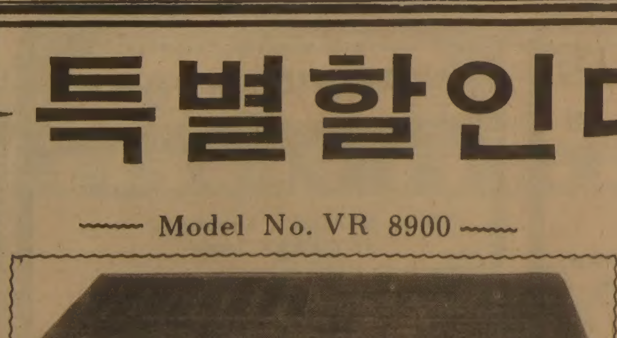
ZENITH

$1,199.95

전 세일가격 $1,099.00

특별세일 $899.00

— Model No. VR 8900 —



- 24 HOUR AUTO RECORDER
- PICTURE SPEED SEARCH
- TOUCH COMMAND CHANNEL SELECTION

● 사 과 문 ●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상점을 애호해 주신 여러 교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ZENITH VIDEO가 이번에 본사로부터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격도 함께 낮추어 판매하게 되었읍니다. 이점 널리 양찰하시고 먼저 구입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교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리면서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 정 운

한국 Video Film Rent도 취급합니다.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한국일보

民願事務 50% 간소화

總2,410種… 국민便宜·현실에 맞게

公知·행정豫告制신설

「複合」은 중간應信制 채택키로

정부는 25일 民願사무처리規程을 전면개정, 현재의 民願사무 4천8백1種의 50%에 달하는 34개部處 2천4백10種의 민원에 대해 국민편의와 현실행정여건에 맞도록 개선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이날 하오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民願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또 民願公知및 행정豫告에관한 규정을 신설, 民願업무처리에서 국민의 편의를 꾀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2천4백10종의 民願사무개선내용은▲10認·許可등 규제완화 25종▲下部기관에 처리권한委任·委託 2백66종▲처리기간단축、조정 4백99종▲民願사무 統廢合및 삭제 6백11종등이다。또 部令과 訓令上의 민원사무법제화및 새로운행정수요에따라 5백26종의 民願이 신설되게됐으나 이번개정으로 1백93종의 民願이감축조정됐기때문에전체民願수는 종전의 4천8백1종에서 4천6백8종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특히 이번 民願사무처리 규정개정을 통해 飼料판매업신고、入山허가신청등 有期限민원 76종을 즉시처리민원으로 바꾸었으며 不要不急한 구비서류를 대폭간소화하는 한편 실제로 국민의 이용실적이 없거나 필요이상으로 과잉규제된 수의기구성능시험、해외기술 훈련履修확인증명및 주임기술자면허신청등 6백11종의 民願사무를 통폐합,정비했다。

이번 民願사무처리 규정의 改正으로▲민원사무처리를위한 관계機關간의 협조체가 강화되고▲複合民願의 중간應信制를 채택,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며▲민원관계 行政기관의 長은 행정처분과 行政計劃등을 널리알리는 民願公知制와 새정책및 제도의 수립、변경시에는 충분한예고기간을 두고 시행토록하는 行政豫告制를 신설하게되었다。

정부합동민원실은 이번 민원사무의 간소화로▲4백99종의 민원에 대해 件當 평균 3·1일씩 처리기간이 단축되고▲4백56종의 민원구비서류감축으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부담이 輕減케되며▲2백66종의 민원을下部기관에 권한위임하거나 위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現地性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수있다고 설명했다。

朴贊兢총무처 장관은 이날 民願사무처리 간소화 작업과 관련、『정부는 앞으로도 필요이상으로 과잉규제된 민원을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키위해 계속 통폐합을 추진할것이며 구비서류감축과 처리기간의 단축등의 개선작업도 계속 할방침』이라고 밝히고 『민원담당공무원은 국민의 불편과 불만요인을 찾아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공정하게 대민봉사에 임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新舊總理、「難題」인수 인계

◇25일상오 離就任式을 끝내고 악수를나누고 있는 金相浹신임총리서리(右)와 劉彰順前총리。新舊총리가 굳은악수를 나누는 순간은 마치「難題」를 인수인계하듯 밝은 표정속에서도 숙연한분위기였다。이들의 악수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새총리가 앞으로 政治梗塞과 經濟難局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국민계층간의 거리감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국민信賴받게 솔선수범해야"

신임金總理

金相浹신임국무총리서리는 25일하오 국무회의를처주재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통해 『국무위원여러분들이 희생과 어려움을 많이 이겨나가고 있을것으로 알고있으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일이 제일중요한것인만큼 모두가 솔선수범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총리서리는 또『국무위원들은 산하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일을 할때 자신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金相浹신임국무총리서리는 25일『만약 우리사회에 막힌곳이 있다면 이를 뚫어주고 맺힌데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고 굽혀진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 펴가면서 서로가 신뢰하고 이해할줄 알때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쉽게 넘길수 있으며 나라의 발전과 성장도 이룩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金총리서리는 이날 중앙청에서있은 취임식에서『이제우리는 그동안의 갈등과 진통을 해소하고 모든국민이 心機一轉해 새로운 출발을기약해야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강조하고『이를 위해서는 국민각계각층이 스스로 자기본분에 全力을다해야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공무원 여러분은 합심협력해 항상 국민의편에 서서 국민을 의식하면서 국정을 집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참다운신뢰와 갈채를 받는 公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하며 모두 마음을 합쳐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국민을위해 밝은 내일을 건설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劉彰順 前국무총리는 離任辭를 통해『본인의 離任을 계기로 하루빨리 政局이 안정되고 새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이 일치단결해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우리 모든 국민이 염원하고있는 이나라의 제2도약을 기필코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劉전총리는 이어『정부에서 일하면서 절실히 느낀것은 과거에 누적돼온 불신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다는것』이라고 지적하고『이제는 이러한 不信의 풍조가 하루 빨리 불식돼야 하겠으며 그래야 우리나라의 발전과성장을 기약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金總理등에 全대통령 任命狀

全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신임 金相浹국무총리와 姜慶植재무·裵命仁법무 徐相喆동자부장관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朴贊兢총무처 장관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하오 비르힐리오·알프레도·올라노 부스토스駐韓콜롬비아대사의 離任예방을 받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

盤浦大橋 준공 全대통령 始走

全斗煥 대통령은 25일하오 盤浦大橋 준공식에 참석、개통테이프를 끊고 승용차편으로 始走한뒤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2층으로 새로 준공된 盤浦大橋의 북쪽입구에서 서울市외 安秉熙 건설본부장으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주변의 경관을 둘러봤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어 銅雀洞국립묘지에들러 충혼탑에 헌화하고 묵념한뒤 塔뒤의 無名용사位牌室을 돌아봤다。

청소년善導 汎국민적推進

政府、白書발표 올 96개사업 千6百億 투입

정부는 청소년대책의 기본방향을▲올바른 국가관과 倫理觀의확립▲능력개발과 心身단련▲청소년선도의 汎국민적 기풍조성에두어 적극추진키로하고 이를위해 96개사업을 책정、올해 1천6백8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했다。

정부가 25일 發刊한 금년도 靑少年白書에 따르면 청소년대책을위해 그대상을 학생과 근로청소년、농어촌 청소년、불우청소년、비행청소년등으로 分類、건전개발과 직업훈련、복지후생、선도교정등 부문에걸쳐 모두96개사업(세부2백11개사업)을책정、강력히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도 청소년시책예산은 지난해에비해 40% 증가한것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대학생에대한 통일안보교육、戰蹟地·遺蹟地순례·연합봉사활동지원등이며 高校生에 대해서는 1일 勝共교육등을 시행하는것 등이다。

이白書는 또 올림픽활복을 추가、88서울올림픽대회를계기로 대회기간동안 1천5백명의 외국인청소년 캠프단을 유치、청소년의 국제친선을 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白書에 의하면 지난1년동안의 소년범죄자는 모두8만8천9백36명으로 77년에비해 6·2%증가했고、年平均 소년범죄증가율은 1·8%로서 전체평균증가율(1·1%)보다 0·7%상회하고 있으며 강력범이 크게 증가한반면 폭행과 傷害·공갈등 粗暴犯은 6% 감소、전체적으로 강력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來週께 3黨代表회담

李民正대표 政治발전문제 時局수습뒤 거론

지난 16일의 靑瓦臺회담의 後續조치로 追加改閣이 단행됨에 따라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빠르면 내주에 대표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의 李載瀅대표위원은 25일『柳致松 民韓黨총재의 사정이어떤지 알아본뒤 來週에 만나보겠다』고밝히고 『柳총재로부터 연락이 올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時局수습과 직접관련이 없는 선거제도등은 擧論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그런 문제를 지금 논의한다는것은 시국수습에 오히려 도움을주지 않기때문에 수습뒤에 擧論해야할 성질의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표는 또『3黨대표 청와대회담은 어음사기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것이었다』면서『그사건 해결을위해 미진한부분을 다루기 위한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內閣이 자리가 잡히면 黨政協의의 기회도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3黨대표회담이 내주에 열릴것같다』면서『民韓黨이 제기한 民主化작업의 추진에대해 金相浹내각에 기대를 걸겠지만 우선 3黨대표회담이 열리는대로 이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도 청와대회담의 후속조치에 관한 보완작업및 정치발전에 대한 金내각에 기대를 걸겠다』면서『3黨대표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이軍、要衝밤둔 장악

시軍 철수協商 有利노려

【베이루트25日 聯合】이스라엘군은 24일 시리아군과의 치열한 공중전및 지상전끝에 레바논의 전략요충 밤둔을 장악함으로써 레바논에서 시리아군 3만명의 철수를 요구하기위한 유리한 협상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고 관측통들이 25일 말했다。

이스라엘군사령부는 코뮈니케를 통해『이스라엘군이 24일밤 베이루트 다마스커스 공로상에 있는 밤둔을 점령한데 이어 이 공로에대한 장악지역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군대변인도 이스라엘군이 밤둔에 도착한 사실을확인했으나 이마을이 이스라엘군의수중에완전히떨어졌는지의여부는밝히지않았다。

베이루트 駐在 美大使館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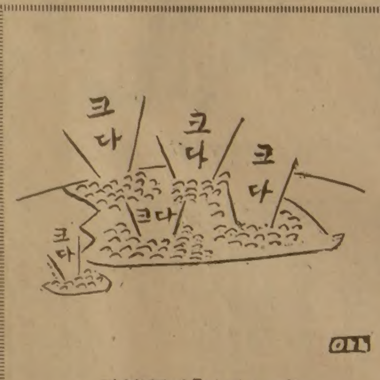
【워싱턴·주니에(레바논) 24日 UPI 聯合】美정부는 24일 이스라엘군의 포위로 고립돼있는 베이루트주재美대사관을 폐쇄했으며 베이루트북부 주니에항에서는 외국인들의 긴급피난이 시작됐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社會漫評



새總理에「기대」一色…

地平線

천하제국 唐의 대군을 맞아 용감하게 싸운 고구려安市城의 영웅들을 삼국사기는 전해주지 못하고있다。동북아시아서 빛나던 7백년 사직을 회복하기위해 봉수산위에서 목숨을 걸었던 백제부흥군의 처절한 역사는 이제 허물어진 산성의 돌조각처럼 말이 없다。역사는 정의의 편에 선다고 잘라 말할만큼 단순하다기 보다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다。▼63년10월부터 65년3월까지 18개월동안 死海 서쪽으로 4㎞、유대평원에 우뚝솟은 한 산성에서 발굴작업이 계속됐다。산성이래야 둘레 천3백m밖에 안되는 네모꼴의 산이다。꼭1천9백년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저항과 피의 드라마가 있었던 현장이다。천하제국로마의 대군과 맞서 3년을 싸운 유대민족의 마지막 역사가 쓰여진 자리다。▼유대인의 마지막 전해져 내려온 비극의 현장에서는「로마인의 노예」보다는 죽음을택했던 9백60명의 뼈와 함께 숨한 유물들이 나왔다。유대인의 역사라기보다는 세계제국의 압도적인 힘으로도 정복하지못했던 인간의 자유정신을 생생하게 증언해준 현장이다。미국의 작가 어네스트·K·간이 소설로 엮은「마사다」는 이 감동적인 현장을 재현해본 것이다。▼어부의 아들 엘리아잘은 마사다성에서 버텨온 병사와 그가족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외쳤다고한다。『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로마인의 노예가 되지않겠다고 맹세했소。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상을 하직합시다。우리는 승리를 위해…오직 사랑과 자유만을 간직한채 이일을 완수합시다』▼로마군단의 실바장군은 산성을 정복한뒤 처참한죽음과 침묵을보고 한탄했다한다。『내가얻은것이라곤 바위뿐이군。과연 이렇게 비참한 승리가 그렇게 중요했던가?』지난 부활절 국내에서도 선보인 텔리비전영화는 작년에 미국ABC방송이 제작해서 충격을 준 작품이다。그것은 모두 1천9백년만에 1년반에 걸친 발굴의 결과였다。▼역사란 신비로운 것이다。글자로 기록된역사는 그중의 한줌을 전해주고있을 뿐이다。1천몇백년의 어둠을 뚫고 나타난 감악산의 비석은 또하나의 비밀을 밝혀줄지도 모른다。그것은 사라진 사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작업과 관련된 것이다。「마사다」의 유물이 인간정신의 비극과 영광을 밝혀줬듯이、우리도 숨겨진 인간의 숨결을 찾는 작업에 보다 크게 눈을 떠야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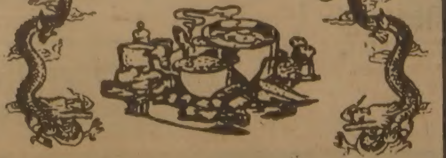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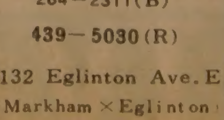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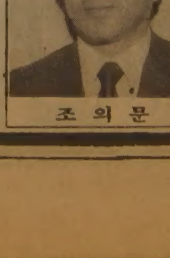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LEON'S
MCLEVIN
SHEPPARD
MARKHAM
HWY. 401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 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조의문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 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行政內閣에서 政治內閣으로

6·24改閣을 말한다

政治部 深夜좌담

—지난 16일 3黨代表의 靑瓦臺회담에서 약속되면서부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引責追加改閣이 8일만에 단행되었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출근 보도진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더니 결국 24일 저녁에야 전격 발표가 되었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幅이나 얼굴이 모두 意外라고 놀라는것 같아요.

—특히 金相浹高大총장의 총리 기용에 놀라움과 기대속에 화제가 滿發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改閣은 사실상 組閣과 성격이 비슷한데 그意義를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이번「6·24改閣」은 개편의幅이 4명에불과하지만 국무총리가 포함이 됐다는점에서 11명이更迭됐던「5·21改閣」과는 또다른 중요한 의미를담고있지요.

—「6·24改閣」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의미가 분석될수있는데 일단은 宜寧사고와 어음사취사건등 일련의大型사고에대한「정치적인 최후의處方」으로 봐야할것입니다. 말하자면 흐트러진 民心을수습하고 國政을 一新하겠다는 정치적決斷으로 평가할수있읍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劉彰順前국무총리를비롯한관계장관들의 引責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民正黨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靑瓦臺회담이 이뤄졌고 거기에서 약속된 引責改閣이 이번에 실현된 셈이니까 명실상부한 對話정치의 所産으로 평가할만합니다.

—民韓·국민당등 야당에서도 예상했던 改閣이기는 하지만 새총리가 金相浹씨인데다 청와대회담의 후속조치가 實證된데대해서 기대를걸어보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改閣이 지난5·21改閣의 연속으로 본다면 총리를 포함한 22명의 국무위원중 자그마치 16명이 更迭된 사실상의 組閣이라고 할수있읍니다. 오늘 횟수로 6번째의 改閣에서 李奎浩문교와 李正五과기처장관을 제외하고는 전국무위원이 교체됐거나 자리바꿈을 한 셈이지요.

—劉彰順총리를 更迭하는 상황에 군이 부총리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에서 유임시킨것 같아요.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위해서는 實物경제팀의 뿌리마저 枯死시켜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봐야될것입니다.

—劉前총리의 實物경제내각팀은 출발때화려했던것과달리 短命으로 끝난셈이지요.

—그동안 實物경제팀은 南悳祐 전국무총리의 이른바「講壇경제」「理論경제」 정책에 反論을 펴며 두차례나 景氣浮揚을위한「會心의 作品」(?)을 내놓았지만모두가 不發彈이 되고 말았어요. 워낙 침체된 경제사정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대치에는 力不及이었읍니다.

—劉전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弔問사절로 떠날때 자신의 거취를 강력히 전달한것으로 알려졌읍니다.

—劉전총리의 退陣기미는 23일하오 金浦공항에 도착할때 직감할수 있었어요. 또한 청와대 귀국보고가 24일상오로 예정되면서 改閣싯점도 어느정도 점칠수 있었지요.

—一說에는 이미 出國전에 默示的으로 사표수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改閣단행에 앞선 24일하오3시에 李宣基전動資는 새삼스럽게 기자들에게 무거운 악수를청해왔고 羅雄培전재무장관도 기자실에들러 「신세많이졌다」「누를끼쳐 미안하다」고 인사, 改閣이 박두했음을 느낄수 있었어요.

—이번改閣의 意外의 反應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역시 이제는 국무총리로 불러야할「金相浹高大총장」때문이 아니겠읍니까. 轉換期와 激動期를 거칠때마다 下馬評의 主役이었던 金총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것이지요.

—대통령이 金총리서리를 직접 만나볼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더군요. 지난20일에는 金총리서리와 李奎浩문교, 孫製錫 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등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때까지도 총리入閣이 결정된것같은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民正黨은 이번 改閣을 국민화합을 이루는 큰계기로 생각하는것 같아요. 신임 金총리서리는 오랫동안 在野에 머물러있었고 그에따라 국민의 여망이 정말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있다고 湖南地區黨을 시찰중인 權翊鉉사무총장이 말하더군요.

—權총장은 또 金총리가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때문에 靑年層의 정치적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金총리가 배출한 졸업생들이 各界에 상당한 中堅으로 있다는점을 높이 평가하고있어요.

—民正黨은 金竣成부총리가 경질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제정책적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읍니다. 羅재무장관은 정치적 책임을지고 물러났지만 부총리가 교체되지 않은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유지라는 고위층의 意志의 표현으로 받아 들이고 있어요. 따라서 姜慶植재무장관의승진기용도 같은 脈絡으로 볼 수 있어요.

—金相浹총리의 기용은 지난 임시국회가끝난뒤 民正黨의국회常任委및 의원간담회에서 難局타개를위해서는 巨物인 그를 總理로 기용하는것이 정치수습의 첩경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지요.

—결국 그런의견이 많이 참작된 셈이군요.

—그래서 지난번 改閣때와는 달리 民正黨의 정치적 판단이 이번 개각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權총장은 李宣基動資部장관의 경질에 대해『이미 한달전 사표를 제출했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더군요.

—民正黨은 한마디로 신임 金총리가 학자출신답지않게 현실감각이 뛰어나 소신껏 정치力量을 발휘할것이라는 점에서「정치內閣」으로 본다는것 같습니다.

—대체로 신임 金총리는「행정사무官主」의 총리스타일에서「정치소신」을 가진 총리가 될것을 당부하고있읍니다.

—民韓黨에서는 부총리와 문교장관이 제외된데 대한 불레임을 걸고 나오기는 했으나 기대이상의 水準作이라는 눈치인것 같습니다.

—특히 金총리서리가 전통야당의 始源인 韓民黨의創黨 重鎭의1人인 仁村金性洙선생의 조카라는점, 維新체제와 갈등속에서 학원을 지켰다는점, 在野와언론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이해할수있다는 점등에 「기대할만한 프리미엄」을 던져보고 있읍니다.

—대통령은 이미오래전 改閣을구상한것같지않습니까.

—단지 철저한보안속에「斷行의時期」만을 신중히검토해온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의 3流土중 金竣成부총리는 유임됐지만 일부에선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羅재무는 취임전부터 곪아온 부정을 송두리째 떠안아가장괴롭다고 보기에 안타깝다는 官街의 평이지요.

—鄭致根법무장관은 국회에서 張여인사건으로 張玲子에서 李哲熙로 바꾸고 자신있는 태도로 답변을 한것이 오히려 말썽의 소지를 남겼고… 그러나 취임한지 얼마안되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란 말도 있었지만 검찰발표에대한 계속되는 의혹속에 張여인사건의 충격이 워낙 커 결국 퇴장하리란 여론이 비등했었읍니다.

—劉前총리는 在任5개월20일로短命한 총리중의한사람입니다. 歷代총리를 보면 最長壽는 6년7개월을 재임한 丁一權총리였고 最短命은 60년 과도기때 2개월을 갓넘긴 許政씨를 들 수 있읍니다. 鄭致根前장관은 1개월닷새만에 물러났는데 법무장관의 歷代기록을 보면 취임보름만에5·16혁명으로 물러난 민주당정권때 李炳夏씨가 最短命입니다. 또 재무장관경우는 최단명으로는 61년에 1개월을지낸 金裕澤씨가 있는데 羅재무는 歷代재무장관중랭킹 6·7위정도의 短命에 속하는 기록입니다.

—金총리서리의 入閣은 意外이면서도 또 자연스럽다는 2重性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제5공화국이후에도 여러차례 참여요청을 받았다는 말도 있었는데다 高大총장으로 있으면서 立法議員도 지냈고 지도자육성장학회이사, 서울올림픽추진委원장을 맡아 사실상 참여의 한발을 들여놓고 있었다고 할수도있읍니다.

—그런셈이군요. 원래 金총리는 62년초 잠깐 문교장관을 지낸 것외에는 36년간 줄곧 象牙塔속에서 지내왔지요. 그런 그에겐 끊임없이 정치참여의 요구가 있었읍니다.

—철저한 학자로서 일관한 그였지만 激變期, 또는 새로운 정치상황이 벌어질적마다 어떤 職을 맡게될 것이라는 풍문을 탄 인물중엔 단연 톱이었지요. 단지 야당이 黨權경쟁을 시끄러울땐 제3의 인물로 야당보수說과 대통령으로 추대說이 있었고 10·26이후 80년초 改憲논의가 한창일때 행정부중심의 新黨說, 2元執政制 얘기가 거론될때는 新黨의 領袖로 총리감이란 얘기까지 나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본인은 펄쩍 뛰었지만….

—金총리서리의登用은 또한 학생과 지식층에도 人望이있고, 그가 仁村의 조카이고 湖南의 名門財閥이자 東亞日報사장을지낸 金秊洙씨의 아들이란 점에서 언론하고도 관련이있고 지역안배의 균형감도 있고 야당관계로 볼때도 無關하지않는등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읍니다.

—신임 金총리서리는 평가에따라서는 多面的이라고 할수있지요. 정부로선 大魚를낚은셈이라고나할까요. 「큰人物」「秘藏의얼굴」을 끌어냈다고해도 과언은아니겠지요.

—民正黨에선 소신있는 인물이란측면에서 李載淡대표위원의 총리說도 오르내렸으며 崔慶祿前駐日大使, 朴東鎭국회외무위원장, 李漢彬전부총리등과 그밖의 경제계인물들도 下馬評이있었지요.

—姜慶植재무장관, 徐相喆동자부장관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케이스이고 裵命仁법무장관도 실상 차관급(법무부연수원장)에서 승진한 케이스로 一脈상통합니다.

—姜재무는 기획원의 토박이로서 實務와 理論을 겸한 인물로 기획원에서 각종要職을거쳐 성장한 경제각료입니다. 羅재무가 취임후 재무차관이됐었지요. 직속상관후임으로는 河永基韓銀총재, 崔昌洛產銀총재, 張德鎭전농수산장관등이 巷間에서 거론되기도했지요. 姜장관의기용은 실물경제에 일부방향수정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安定基調의 性格은 不變이라는 신호로 보이는군요.

—裵命仁법무장관은 몇차례의 검찰개편때 주목을 받아온 인물로 鄭致根전임법무장관, 金錫輝검찰총장과 같은 고시8회 출신입니다. 고시8회의 유수한 인물로 꼽히는 그가 지난5·21改閣때 법무부연수원장으로 갈때는 마지막코스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니 사람의 일은 함부로 말할 문제가 아니군요. 그는 民正黨의원인 裵命國국회건설위원장의 親兄이기도하지요.

—법무장관후임에는 많은 인물들이 거론됐는데 部內나 在野나하는 얘기속에 이번엔 관록이있는 연배의在野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도 만만치 않았읍니다. 그래서 古參법조인인 民正黨의 李龍薰, 羅吉祚의원얘기도 나왔고. 여론의「改閣카드」에 없던 케이스이지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보면 동자부가 광업진흥공사의 감독부서라는 도의적책임문제가 따른것 같기도 합니다.

—李前장관은 鑛振公사장인 李圭光씨의 사표를 받으라는 시달이 내려갔을때 한때 長·次官이 연락이안돼 얘기가 있었지요.

—徐相喆 신임동자부장관은 最短期 차관에서 장관으로 榮轉한 셈인데 좀 의외의 승진이란 평입니다.

—靑瓦臺회담후 기다려지던 후속조치의 하나로 追加改閣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政局을 診斷해볼까요.

—어음사기사건을 다루기위해 국회가 열렸지만 마무리를 하지못해 청와대 3黨대표회담이 열렸고 오늘의 改閣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野圈의 태도가 앞으로의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로 작용할것으로 보입니다.

—野圈은 3黨대표회담을 빨리열어 청와대3黨회담때 논의된것을 구체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民正黨은 3黨회담의 뒤안이 李·張사건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측이 政治議案의 논의를 고집한다면 회담을 미룰수 있는데까지 버틸 전망으로 봅니다.

—民正黨은 또 야당측이 부총리의 경질을두고 더이상의 정치공세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가지 예측되는 政局變數가 더 있는데 그것은 民韓黨이 주장하는 張여인사건에 대한 野圈共同조사위원회의 설치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政局에 餘震으로 작용 할것으로 예상되기도 해요. 한편 民正黨은 이번개각을계기로 국민의 수습작업이 마무리되도록 주력할것이며 野黨측과 접촉,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金총리내각은「時局수습내각」「與野緩衝내각」의 성격을 띠고있는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금까지의 경제일변도내각성격에서 벗어나 정치력도 어느정도 발휘해야한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역시 政街에서는「움직이는총리」를 원하는것같습니다.

—野黨측에선 그동안 정부와는 정치대화가 안된다는말을 해오곤했는데 이제 정치활동피규제자 解禁등 정치문제등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게됐다는 입장을 취하게 될것이며 그런면에서 金총리내각은 與野양측으로부터 기대를모으며 출범하는 셈이죠.

—與野나 국민모두가 기대를하고있는만큼 金총리로서는 어려운때 重責을맡은이상 그동안 갈고닦은 經綸과 그나름의底力을 선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政治部】

뜻밖의「大魚總理」에 期待와 話題

劉내각 5개월20일만에 下車…「5·21」합치면 2명만殘留

實物3총사중 金부총리留任은 經濟政策일관성때문인듯

政局 일단安定고삐…새솜씨 주목

◇국민과 與野의 前例없는 기대속에 出帆한 金相浹내각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課題는 너무나 많다. 새內閣의 難局打開노력과 力量은 곧 국가발전과 국민단합에 촉진제가 될것이다. 사진은 25일하오 취임후 첫閣議를 주재한 金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메아리

2층 다리

칠석이 되면 땅위의 까치와까마귀는 모두 은하수로 올라가 그위에 <오작교>를 놓는다. 오작교는 견우와 직녀가 1년동안 쌓여온 사랑의 회포를 푸는 그 다리를 건너며 회포를 다 풀기전에 동녘은 밝아오고 둘은 다시 헤어져 가야한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傳說이다. 오작교가 아치型이었는지 平型이었는지 그까지는 알수없으나 참으로 정취에 넘친 다리였을것만같다. 다리—하면 대개는 멋있는 정경을 먼저 그리게 된다. 「미라보 다리」「제3 한강교」「런던·브리지」… 뭔지 황홀한 감회를 일깨우는 이름들이다.

그러나 생각을 돌려 6·25때의 한강다리를 돌이키면 그보다 더 참담한 광경은 없을것같다. 극한적인 상황하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던 다리에 매달려 허둥거리던 일.

바로 그「6·25」서른두돌이던 어제, 漢江에 열세번째로 또하나의 대교가 개통되었다. 그것도 다른 다리와는 다른 2重橋이다. 지금의「潛水橋」위에 다리를 하나를 겹쳐올려「盤浦大橋」라고 개명한것이다. 예상되는 통행 차량은 줄잡아 하루 12만대. 「美裝」에도 신경을 써서 서울의 새 名物로 꼽히게 틀림없다. 물론「潛水橋」때 부터도 명물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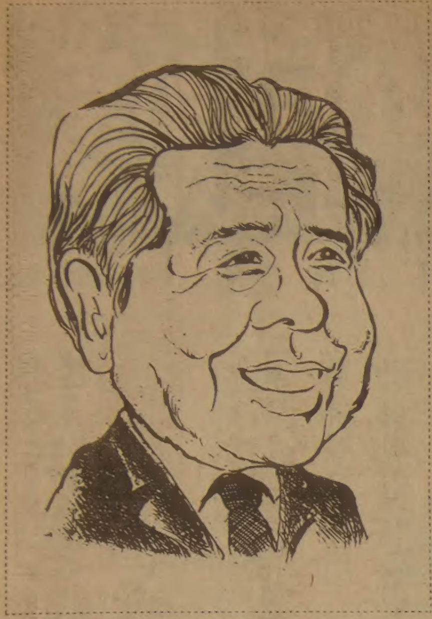
그러나 2층다리란 그리 흔하지 않다. 그중 파리 센江의 비르하켐橋는 1백12m길이의 鋼製2층으로 1904년에 완공된것이다. 아래층은 車道와 人道, 위층은<메트로>라는 地下鐵이 지난다. 西獨자우에르란트에있는 2重橋는 1962년에완공 되었다. 위층이 鋪道고 아래층은 鐵道다.

모스크바 시내를 흐르는 모스크바강에도 2重橋가 있다. 위는 車道, 아래는 地下鐵路다. 中共도 揚子江을 건너는 2重橋를 1957년에 완성했다. 武漢—長江大橋라는 이다리는 武昌과 漢口 두도시를 이으며 全長은 1km를 넘는다. 上床은 道路, 下床은 복선鐵道며 폭22.5m로서 우리盤浦대교보다는 2.5m가량 좁다. 가장 최신의 외국2층다리는 1970년에 개통된 日本神戶市의 神戶大橋인데 전부車道다.

르네상스때의 교량건축대가였던 안드레아·파라디오가 남긴 다리論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수 있는 간명한 名句일듯하다.『다리는 利用하기에 편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오래도록 튼튼해야 한다』

서로 믿는 훈훈한 분위기를

金相浹 새總理 인터뷰



"우리것 우리가 가꿔야"

밝힐건 밝히고 막힌데 뚫어 難題극복

『우리가 사는 이나라는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입니다. 이 사회와 가정도 남의것이 아니고 우리것입니다. 이 모두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더 기쁘게 하기위해 국민들이 渾身의 힘을 기울여야합니다』

金相浹신임국무총리서리는 24일밤 鍾路區惠化洞 자택에서 총리임명 소감을 밝히면서 이도중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合心노력을 강조했다.

62년 최고회의당시 9개월간 문교장관을 지낸기간을 제외하곤 46년 高大助교수로 부임하면서 총장에 이르기까지 36년간 캠퍼스를 지켜온 老學者는 『相이란 감투를 썼다는 표정이라기보다 難局을 극복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듯 했다.

밤8시30분에 歸家하여 방안을 가득메운 기자들을 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가볍게 인사를 건넨후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갑자기 重責을 맡아 어리둥절했읍니다. 과연 책임을 순조롭게 완수할지 걱정이 泰山같습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뿐 국민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때까지는 누구나 할수있는 평범한 인사말이었다. 그러나 말을이어가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이 가해졌다.

『내가 하는일은 혼자하는일이 아닙니다. 위로는 대통령의 經綸이있고 옆으로는 각부장관들의 총명과 공무원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있읍니다』

金총리서리는「나」에서 시작하여「우리」로 論理를 연결시키더니 『국회의원들의 솔직한 비판과 私心없는 협조가 있을것을 믿으며 국민들도 生業에 충실, 나라발전에 기여해주길 믿습니다』라고『국민전체』로 범위를 확대해나갔다.

그는 또 前方의 일선장병과 후방의 예비군, 가정주부들까지 언급한후 마지막으로 『젊은 학생들은 미래의 高度선진사회에 필요한 선진지식습득에 전력을 쏟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東京帝大 정치학과를 졸업, 학문에만 정열을 쏟아온 金총리서리는 갑자기 대학을 떠나게 된것이 한편으로 섭섭한듯 『대학에 몸담은지 36년간 두번에 걸쳐 총장을 맡았고 오는 8월17일 임기가 끝나면 총장직을 내놓게 되어있는데 50일을 남기고 떠나는것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면서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감정보다는 국민과 우리나라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였다.

—총리로서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직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읍니다. 東西南北 前後左右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막힌데를 뚫고 모든사람이 거리낌없이 合心해나가도록하는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金총리서리는 국민들이서로믿지않고서 떠서먹한분위기를 서로 믿고 훈훈한분위기로 만들어 어려운상황을 극복해나가는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사회가 어수선할때마다 총리下馬評에 오르던 金총리서리는 朴正熙前대통령시절 總理職을 맡아줄것을 요청받자 「緊急措置를 풀어줄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는 後聞도 있다.

『10여년간 총리직수락요청을 계속뿌리쳤다는 說이있는데 이번에 수락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그는 『전부 추측일뿐 정부측에서 요청도 없는데 어떻게 거절할수 있겠느냐』고 잡아떼며 『이번에는 정부측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니까 매양 거절할수도 없어 그렇게 된것』이라고 實吐했다.

—매번 거절했다는 뜻이 아닌지….

『지금한말은 취소합니다』 그는 실수라도 한듯 웃음을 띄면서 『여하튼 이제 우리가 우리것을 우리사회 우리가정임에 우리가 위해 일하지않으면 안됩니다』고 말문을 돌렸다.

—제5공화국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평소 느낀 소감은.

『내가 20년전 잠깐 행정부에 몸담았을때는 농촌高利債, 饑餓추방, 政界순화, 亂立대학정리등 문제가 단순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難題가 훨씬 많고 복합적입니다. 당시 국민소득이 80달러였는데 지금은 1천6백달러로 늘어났듯이 사회문제도 그에비례하여 고질화되었다고 할수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사이의 不信, 오해, 갈등을 해소해야합니다』

—民心수습과 不信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생각은 어떤것인지.

『이야기할것은 이야기하고 밝힐것은 밝혀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行政운영으로보아 총리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있지는 않은지.

『헌법條文上 총리의힘이 거대한것은 아닙니다. 독자적인 고유의 영역은 많지않지만 행정각부를 조종하는것이 중요하지요』

金총리서리는 총리직을 수락하기까지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학교를 떠나는 판에 세계로 모험한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學文과 現實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있는힘껏 뛰어볼 각오』라고 말했다.

—湖南출신 총리는 처음인것같은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全南 고창이고 아버지때 全北扶安으로 이사해 내가 네살때까지 살다가 그후 서울로 이사했읍니다. 내피는 1백% 湖南인 셈이지요』

—地域感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좁은땅에 東西南北이 어디있읍니까. 일시적인 激情이 있다면 그것은 풀어야 할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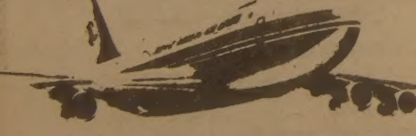
그는 『우리가 사는 이나라…』를 몇번이고 반복하면서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현실이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역사의식을 갖고 참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라며 일반사회도 대학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말고 애정으로 감싸주어야 한다』고 지역간 사회계층간의 화합을 계속 力說했다.

마침 집주인의 人品을 그대로 묘사한「重默」이란 書藝家 黃旭선생의 揮毫가 응접실입구에 걸려있는 金총리서리댁에는 이날저녁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보도진과 高大교수 졸업생들이 뒤범벅된데다 아시아 여성의원세미나에 참석했던 21명의 국내외 여성의원들의 만찬이 겹쳐 영문도 모른채 혼자 집을 지키고있던 부인 金仁淑여사(58)는 음식준비와 손님접대로 정신이 없을정도였다.

총리임명소식을 듣지못한채 도착한 외국여성의원들은 『그게사실이냐』고 깜짝놀라가하면 외국의원들은 『총리댁에서 한국음식을 들게되어 영광』이라고 기쁜표정을 짓기도.

3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후 여성의원들에게 인사하기위해 손을잡고 안채로 들어서는 金총리서리 內外의 남매처럼 닮은 얼굴에서 그들의 두터운 夫婦情을 읽을수 있었다. 【李在武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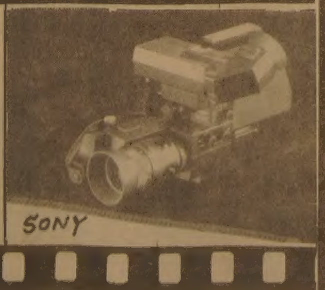
제일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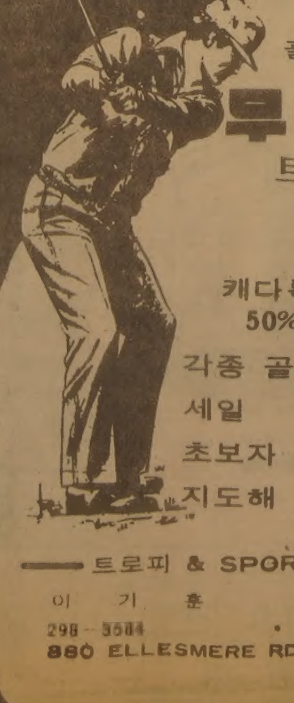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회갑 · 결혼 · 돐사진



현대문명의 이기, 비데오로 모든행사
하나하나를 기록할 수 있읍니다.
사진의전당
새한칼라현상소 VIDEO부
630 BLOOR ST. W. 535－7772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百億臺 宗中땅「거미줄訟事」

서울 永東청담洞 금싸라기 4만坪 受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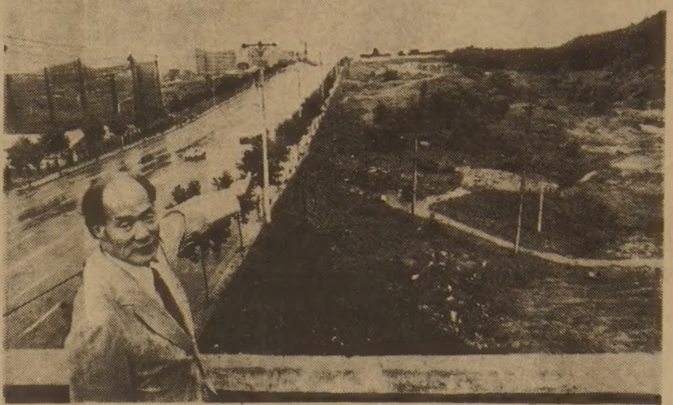
12년동안 유령宗孫에 18차례 訴訟거듭

브로커·財閥 加勢

싯가 1백억원을 홋가하는 서울 永東의 금싸라기땅 4만여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문중 종파사이에 「송사」가 칡뿌리처럼 얽혔다。지난12년사이에 자그만치 18번의 소유권확인등 소송이 있었고 끝내 원소유권자가 승소했으나 또 수십번의 소송을 겪어야 하는 수난이 기다리고있다。장기간 일련의 소송이 복잡하게얽히는 사이 빈틈을비집고 들어온 토지브로커들이 농간까지 부려 문제의땅이 분할된채 「전매」에 「전매」를 거듭해 또 한사람씩 따져들어가며 소유권확인을 해야할 판인데다 최근에는 재벌그룹까지 등장、「전매된땅」을 마구사들이고있어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莫強한힘」作用- 分割된채 轉賣 거듭

"社會환원 시키려해도 못해 안타깝다"



◇문제의 땅 安東權씨 花川君파 종중이 12년동안 18차례의 소송을 치르며 安東權씨 다른종중 또는 토지사기범들과 소유권싸움을 벌여온 서울江南區淸潭洞山21의1 4만평땅。花川君의 16대손 權得相씨(68)가 사회에 환원시키려해도 땅의 소유권을 모두 찾지못해 어렵다고 안타까와 하고있다。

원소유권자는『땅전체를사회에 환원하겠다。그러니 소유권은 분명히 가려두어야하지않겠느냐。조상을 볼낯이 없다』면서 마라톤송사에 지친모습에 억울한표정이 그득하다。

문제의땅은 서울 江南區淸潭洞山21의1일대로 이웃山7·8및 21의2~6、23등 9천평과함께 安東權씨 花川君파 종중과 花川君의17대종손 權熙宗씨(70·종중대표·서울江南區狎鷗亭洞 시영주택1단지25동)공동명의로 등기가 돼있었던것。

그러나 6·25때 토지대장등이 모두소실된것이 송사의 화근이 됐다。

權씨등에의하면 그후 토지등기를 회복하려했으나 인우보증절차가 까다로와 그냥놔뒀는데 60년대말부터 江南지역에 토지붐이 일기시작하자 토지사기범들이 이땅을 넘보면서 분쟁이 일기시작했다。토지브로커는 물론 安東權씨 후손을 사칭、급조된 유령종중이 진동적인 토지브로커와 결탁、『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수십차례의 민·형사사건을 제기했다는 것이 花川君파의 주장이다。

지난 70년에는 安東權씨 가짜후손인 權永重등 7명이 자기들 땅이라고 불법등기한 사실을 뒤늦게알고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그후 12년동안 1、2、3심 합해 모두 18차례의 민사재판을 벌였는데 그때마다 모두 승소、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에서 일부땅(3분의1지분)에 대해서만『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판결을 받았을뿐 나머지 3분의2지분땅에대한 소유권은 확정받았다。

그러나 소유권 분쟁이계속되는동안 이미다른사람 명의로된지분은 계속전매돼 원소유주인 花川君파및 종중대표인 權熙宗씨등은 소유권을행사하지못한채 아직도 이전등기에대한 말소청구소송만을 계속하고있다。이같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동안 權熙宗씨는 17차례에걸쳐 고소·진정을 받았는데 모두무혐의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고。

특히 이땅이 權熙宗씨와 「權洪」「權度相」등 3명이 3분의1지분씩 불법등기돼있는것을 權熙宗씨가 찾기위해 소송을 진행시키던 지난71년4월에는 權洪、權度相씨가 토지브로커 李領善씨등과 짜고 모종사기관의 申모씨에 부탁、權熙宗씨를 서울 로얄호텔로 납치해서 재판상 화해를 종용하고 소송을 취하시킨뒤 3명이 3분의1지분씩 공유하게 돼있는 등기를 기정사실화 하기까지 했다。

그이후 申모씨와 李領善씨 등은 범행이 탄로나 구속됐고 權熙宗씨는『강박에 의한 화해였다』며 재심을 청구、대법원에서 역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이 權洪·權度相씨는 이미 자기들 지분을 李領善씨를 거쳐 1백여명에게 팔아넘긴뒤였고 權熙宗씨는 다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내 지난해12월22일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을수 있었다。

한편 구속된 權洪씨소유로 돼있다가 대법원판결에 의해 權熙宗씨소유로 확정된 3분의1지분땅은 이미 20여명에게 전매돼 權熙宗씨는 다시 이들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사이 모 개발회사가 이땅을 매수하고있어 의혹을 짙게하고있다는주장이다。

게다가 원래부터 소유권이 權熙宗씨 명의로돼있는 3분의1지분(持分)에 대해서도 花川君파 종중에서는 유령종중이라고 주장하는 安東權씨 司諫公파종중에서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제기해 싸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소송 역시 1심에서는 花川君파와 權熙宗씨가 승소、2심에 계류중이다。

한편 12년간에 걸친 송사에지친 權熙宗씨는『조상에 누를 끼쳤다』면서 끝까지 싸울뜻을 비치고있다。

"전국藥局 오늘부터 休業"

藥師會결의 光州지역은 어제부터 撤市

「醫藥분업」 "강행" "반대" 팽팽한 對立

2종의료보험 시범지구에 대한의약「임의분업」실시문제를 둘러싸고 보사부는「강행방침」、약사회는「반대」입장을고집、맞서고있다。

대한 약사회는 24일하오 서울鍾路2街 약공회관에서 전국대의원 총회를열고 전남 木浦등 시범사업지구에서의 「의약임의 분업」에항의、26일부터 전국적으로 약국문을닫고 휴업에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지난23일부터 木浦시내전개업약국이 문을 닫은데 이어 25일에는 전남도내 약국들이 휴업에 가세했다。

보사부당국자는 25일 하오 현재 木浦、光州지역의 약국들이 철시했고 麗水、順天지역은 일부약국이 문을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金正禮보사부장관은 이날『당초의 처방및 조제에 관한 지침은 이미 시달된대로 변경없이 시행될것』이라고 밝히고『병·의원의 처방전발행이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현지에 관계관을 파견하는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어 약사들의 파업결의에 대해『약사들이 파업할 경우 서민층 환자에게 커다란 고통이될것』이라고 우려하고『약사들이 보건인의 직업윤리와 양식으로 돌아와 전국파업결의를 철회할것으로 믿고있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약사들의 전국파업을 만류하기위해 최종순간까지 약사회측 대표들과 협의와 설득을 계속하고있다고 밝혔다。

金장관과 보사부관계자들은 지난3일간 약사회측대표들과 마라톤협의를 계속한데 이어 25일하오4시께부터 보사부회의실에서 또다시 협의했으나 해결점을찾지못했다。

金장관은 이자리에서 약사들이 요구하는바의 의약분업은 제반여건의 불비와 국민의불편、그리고 현행법상의 규정때문에 일시에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앞으로 3개월정도에 걸친 시범사업의 결과를보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이 공존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제도적의약協業」의 실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시운전사 月給制

慶北組合 한달最高 22만5천원까지

【大邱】경북도내 각시군택시운전사들에게 이달부터 월급제가 시행된다。

25일 경북택시사업조합(이사장 李相伯)에 따르면 도내 각지역별 노사협의회를열어 이달부터 모든 고용운전사들에게 일당대신 월급을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운전사들의 월급은 기름값을 공제한 전체수익금을 매일전액회사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월20~25일 근무를할경우 기본급과 수당、성과급등을합쳐 지역에따라 최하16만5천원에서 최고22만5천원까지를 다음달 5일까지주게된다。

도내 각지역별 택시 운전사들의 월급액수를 보면 浦項市의 경우 한달 20일 근무 기준에 연료비를 포함한 1일 회사 납입금이 5만원~5만5천원선인데 운전사들이 양심적으로 사납금을 내고 성실히 근무했을경우 기본급 7만2천6백40원、수당 9만6천3백60원、성과급 5만6천원등 모두 22만5천원을 받게된다。

또 慶州市는 20일 근무에 사납금이 1일 4만7천원에서 5만원선으로 기본급10만3천2백원、수당5만6천8백원、성과급 4만5천원등 20만5천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택시대수가적은 군지역도 이같은수준에따라 이달부터 전면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는데 경북도내는 89개 택시업체에 1천7백25명의 운전사들이 고용돼있다。【聯合】

벼잎 도열病발생 慶南晋陽·咸安에

【晋州】경남晋陽·咸安郡에서 벼잎도열병이 발생해 농사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25일 경남 농촌진흥원에 따르면 晋陽郡 文山面三谷里 沈만수씨(46)의 벼논 3백평에 심은 밀양23호와 咸安郡 伽倻邑 山西里 安영진씨(58)의 낙동벼 3백평에서 잎도열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농사관계자들은 이에따라 이미 발생한 벼논에는 4·5일 간격으로 살균제농약을 집중방제토록 당부하는 한편 잎도열병이 계속 늘어날것에 대비、6월하순부터 7월상순까지 도열병약과 살충제를 혼합해 동시 방제토록했다。【聯合】

구독신청 배달사고

光州시위 두被告에 징역8~10월 宣告

【光州】光州지법 형사단독 金久一판사는 25일 光州사태 2주기추모예배및 시위사건 관련 피고인에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한국기독교 康津교회목사 金敏植피고인(45)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한국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 金泳鎭피고인(34)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聯合】

버스에 空氣銃彈 날아와

서울 阿峴高架道 승객 목에박혀 手術

시내버스를 타고가던 20대 승객이 열린 창문을 통해 날아든 공기총탄에 맞아 부상을입었다。

24일 하오2시15분께 서울麻浦區阿峴洞 阿峴고가도로입구에서 화곡교통소속 서울5사9580호 시내버스(운전사 홍공의·27)를 타고가던 金成根씨(28·서울江西區登村洞366의95)가 열린 창문을통해 날아든 공기총용 소형 납탄에 목을맞고 전치3주의 중상을 입었다。

金씨에의하면 이날 왼쪽차창밖을 보다 고개를 돌리는순간『퍽』하는 소리와 함께 목오른쪽에통증을느끼고손을대보니 피가묻어나왔다는것。

金씨는 禾谷洞 江西정형외과에서 수술을받고 길이7㎜ 직경5㎜의 공기총탄환을 빼냈다。

공기총탄은 金씨의 와이셔츠칼러에붙은 단추에 맞은듯 단추가 밖으로깨졌고 오른쪽목아랫부분 1·5㎝깊이에 박혀있었다。

天主敎 全州교구장 朴正一주교를 발령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24일 공석중이던 한국천주교全州교구장에 朴正一濟州교구장(56·세례명 미카엘)을 이날자로 전보 발령했다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가 발표했다。

朴正一주교는 平南출신으로 로마 우르바노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석사)을 전공하고 1958년11월23일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지난77년4월부터 濟州교구교구장으로 일해왔다。

한편 후임 濟州교구장은아직 임명되지 않았는데 全州교구는 교구장이던 金在德주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함에따라 지난해 4월부터 교구장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왔었다。

멸종위기 自然產굴 水振院서 양식시도

【釜山】국립수산진흥원이 멸종위기에 있는 남해안 자연산 넙적굴의 대량양식을 시도、어민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25일 국립수산진흥원에 따르면 날이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넙적굴을 대량양식하기 위해 패조류 연구팀이 자연산 종패를 구입、오는 7월초에 실험실에서 인공채묘할 예정인데 성공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양식에 들어간다는것。

넙적굴은 패각자체가 둥글게 생겼고 크기도 현재 대량양식중인 참굴보다 훨씬커 값비싸게 팔리는데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있어 대량양식이 되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적잖은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통조림등 가공식품으로 개발되면 채산성이 더욱 높을것으로알려졌다。【聯合】

雪岳山에 20代남녀變屍體

봉화대북쪽 1백m절벽 아래에

【束草】25일 하오1시께 강원 雪嶽山 권금성 봉화대북쪽 1백m 절벽아래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20~25세가량의 남녀한쌍이 변시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爆藥·뇌관 다량盜難

和順郡 農業용수로 공사장에서

【光州】23일하오7시10분부터 24일상오 8시30분사이 전남 和順郡 同福面 獨上里 俞川堤농업용수로 개설공사장 폭약창고에보관중이던 공업용폭약 20개와 전기뇌관70개가 없어진것을 화약주임金亨澤씨(54·光州市 東區山水2洞559의51)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金씨에 따르면 23일하오7시10분께 창고점검을 마치고 야근조인 경비원 金成福씨(28)등 2명에게 경비를맡긴후 퇴근、24일아침 출근해 이같은 도난사실을 확인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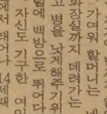
경찰은 和順郡에서 인근光州·谷城등지로 통하는 14개검문소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현장이 和順읍에서 30㎞떨어진 산중으로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점으로 미루어 혹시 불순분자의 소행이 아닌가보고 수사중이다。

조사결과 당직경비원 金씨등은 당일밤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聯合】

「복어알 殺人」

孫子살리려다 숨지게한 尹正子씨

"쏟은 정성이 되려 罪가 되어…"



24일하오의 泰陵경찰서형사계。취조형사들은 웬 할머니의 기구한 신세한탄을 듣느라 한동안 일손을 놓고있었다。검시방해및 과실치사혐의로 불들려 왔다는 尹正子씨(사진·50·서울道峰區上溪洞173의3)。울음소리에 가려 반쯤은 알아들을수도 없이 털어놓는 할머니의 사정은 참 딱한것이었다。생명처럼 아끼던 손자가 자신의 무지때문에 죽게되기까지의이야기였다。

할머니는 3년째 이제 네살된 손자를 혼자 키우고있었다。아들은2년전에 결핵으로 숨지고 며느리도 뒤따라 집을나가버려 고아가 돼버린 외동손자였는데 할머니는 이손자를 끔찍히 거두었다。더구나 이 딱한 손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듯 결핵성임파선염을앓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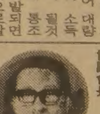
할머니가 손자에게 쏟은 정성은 건강한아이의 몇배 몇십배였다。부모도 없는 처지에 병까지 앓아 꼬마손자가 가여워 할머니는 네살이 되도록 화장실까지 데려가는 시중을 해왔고 병을 낫게해주기위해 어려운 살림에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할머니 자신도 기구한 여인이었다。일본에서 태어나 14세때 부모와함께 귀국、두차례나 결혼을 했으나 두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혈혈단신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그래서 손자는 더더욱 귀중한 존재였고 걱정은 항상 어린 손자의 병이었다。

지난해7월 손자의 병이악화、왼쪽목에 임파선염으로 혹이 달릴정도로 부풀어 올랐다。이때 할머니는 徽慶洞 위생병원에 손자를데리고가 수술을 받기도했고 전남靈岩의 한의원에도 달려갔고 인근병원에서 매일 마이신 주사도 맞혔다。그러나 손자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지프라기라도 붙들 심정이된때 할머니는 우연히『연두창에는 복어알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이방법밖에없다는 주위의말에 할머니는 여기저기 수소문、지난21일 水原에서 가까스로 복어3마리를구할수 있었다。복어알이 위험하다는 생각도할 겨를없이 3마리 배를 갈라 그중 한마리에서 알을꺼내 불에 구워 방긋웃는 손자의 입에넣어 주었다。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을 손자의 웃는모습은 그것으로 끝이었다。1시간도못돼 손자는 사지를뒤틀며 괴로와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저세상으로 떠난 뒤였다。무지는 그것자체로 죄악이었다。【趙明九기자】

韓日親善協副會長 金正柱씨



전民團단장이며 현 한일친선협회 부회장인 金正柱씨(사진)가 25일 상오1시16분 뇌일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향년66세。金씨는 72년부터 74년까지 민단33대 단장을 역임、재일동포의 권익옹호를위해 일해왔으며 일본속의한국문화등 학술활동에도 눈부신공적을남겼다。金씨는 24일하오5시 東京에서 한일의원연맹과 나가노(長野)민단과의 간친회에 참석 재일동포의 차별문제에 강연을하던중졸도。【東京25日=宋孝彬특파원】

5行뉴스

◆내연의妻예금 몰래 빼내써

【釜山】釜山鎭경찰서는 24일 내연의처의예금 6백67만원을 몰래 빼어쓴 안정규씨(30·여관업·釜山鎭區田浦1洞28)를 사문서위조 동행사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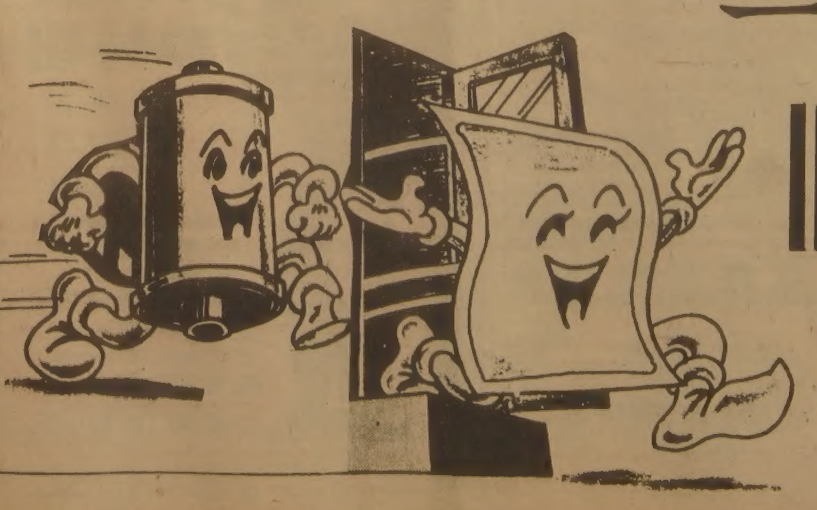
◆깨뜨린수박시비 경찰때려

【安東】安東경찰서는 25일 남의수박을 깨뜨린혐의로 연행하려던 경찰관의 목을졸라 1주일 상해를입힌 조현관씨(21)를 공무집행 방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숲속에 60代남자 變屍體

【堤川】24일 하오 4시35분께 충북 堤原郡 白雲面 平洞里 속칭 박달재중턱 해발4백m 계곡 숲속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60대남자가 변시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聯合】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스피디인쇄소
스피디인쇄소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W. (킴스카메라 내) ☎ : 535-3520 곽호중

월드컵蹴球 29일부터 12強 2차리그
西獨·墺 오늘「운명의 한판」

막판 페널티킥에 울어버린「온두라스」
異變·話題만발…豫選마쳐

【마드리드24日=聯合】 제12회 월드컵 축구대회는 26일 상오4시 (이하 한국시간)에 전(5조)을 마지막으로 연 13일간에 걸친 1차 예선리그를 완료, 29일 새벽부터 12強의 2차리그에 들어간다. 25일 새벽 오비에도에서 열린 2조 경기에서 아프리카의 신예 알제리는 칠레를 3-2로 격파했으나, 2차리그 진출권을 확실히 잡지못한채 26일 새벽 열리는 西獨-오스트리아 경기결과에 운명을 걸고 있다.

西獨-오스트리아전에서 西獨이 이기면 西獨 알제리 오스트리아 3팀이 모두 2승 1패를 기록, 골득실차로 순위를 가리게되며 오스트리아가 西獨을 물리치거나 무승부가되면 오스트리아와 알제리가 2차리그에 오르게 된다. 25일 현재 3팀간의 골득실차에서는 알제리가 가장 불리하다. 알제리는 살라·아사드(2골)와 벤사울라의 득점으로 전반서 3-0의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 칠레의 미겔·네이라와 환·레테리어에게 연속 실점, 3-2가 됐다.

바야돌리드서 벌어진 4조 경기에서 프랑스는 경기종료 5분을 남기고 있을때까지 1-0으로 리드해 나가다가 체코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먹어 1-1무승부를 기록했으나 26일 잉글랜드-쿠웨이트 경기서 쿠웨이트가 대승하지 않는한 프랑스가 組2위로 2차리그에 오르게된다.

한편 中美의 신예로 각광을받고있는 온두라스는 사라고사서 열린 유고와의 중요한 한판승부에서 경기종료 2분전 통한의 페널티킥을 허용하여 1-0으로 패하는바람에 아깝게 2차리그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유고와 비기기만 해도 2차리그에 오를수 있다고 판단한 온두라스는 철통수비로 버티다가 FB 비예가스가 유고의 FW 밀로스·세스티에게 트리핑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다.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여 2차리그를 바라보던 온두라스는 막판 페널티골(페트로비치)로 분패하자 좌절감과 분통을 이기지 못해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스페인 北아일랜드와 비겼던 온두라스로서는 정말 뼈아픈 순간이었다.

◇제12일전적

▲2조
알제리 3 (3-0 0-2) 2 칠레
(2승1패) (3패)

▲4조
프랑스 1 (0-0 1-1) 1 체코
(1승1무1패)(2무1패)

▲5조
유고 1 (0-0 1-0) 0 온두라스
(1승1무1패)(2무1패)

◇볼은 네트에… 2組 알제리—칠레경기에서 알제리 GK 메디·세르바선수가 페널티킥을 막다가 실패, 네트에꽂힌 볼을 바라보고있다. 알제리는 3—2로 이겼다. 【오비에도 (스페인) 24日AP=聯合】

월드컵通信

서로 "돈주고 승부조작" 舌戰
收入 더올리려던 속셈 좌절
편파적判定… "世界망신"

◇…알제리-칠레경기가 끝난후 양팀감독은 기자회견을 갖고 『알제리의 백만장자가 게임을 져달라고, 칠레에 돈을 줬다』는 소문에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

알제리의 라시드·메클로피감독은 『오스트리아가 알제리를 깨달라며 칠레에 보너스를 줬다』고 반격.

그는 『우리는 오직 스포츠맨답게 규칙을존중한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승리를 당연한 결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고 코멘트.

한편 칠레 감독은 『우리가 오스트리아대표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것은 헛소문일뿐만아니라 만약 누가 돈을 싸들고와 그런제의를 했더라도 헛수고였을것』이라고 대답.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대전장소를 대형경기장으로 옮기려는 계획은 실현되기 힘들듯.

FIFA와 대회조직위는 2차리그 빅·이벤트인 이경기를 4만명밖에 수용하지못하는 비좁은 바르셀로나의 사리아경기장으로부터 11만명의 관중이 들어갈수있는 인근의 노우·캄프경기장으로 옮겨벌일 것을 고려하고있는데 이미 입장권인쇄가 모두 끝나는 등 행정적인문제때문에 이 점은 어려울것같다는것.

◆…게임막판에 페널티킥으로 유고에 패배, 2차리그진출이 좌절된 온두라스팀의 다니엘·마타모로스단장은 『심판이 우리를 탈락시켰다. 오늘의 판정은 세계적인 망신거리』라고 불평. 그는 『지금까지 가진 세계의경기서 모두편파적인 판정으로 피해를입었다』며 『오늘 심판은 파렴치한자』라고 혹평. 마타모로스단장은 또 『우리는 경기에서 지지않았으므로 떳떳이 고개를 쳐들고 돌아가겠다』고 밝히고 이 심판보다 FIFA의 잘못이 더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는 벌금을 물 돈도 없으니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게 낫겠다』고 답변.

◆…아벨란제 FIFA회장은 『FIFA는 각국 대표로구성된 단체로서 특정한 국가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강조, FIFA에 대한 쿠웨이트측의 비난을 반박.

◆…쿠웨이트는 팀의 마스코트인 낙타1마리를 마드리드 동물원에 기증. 마드리드 동물원당국은 낙타를 기증받자마자 이낙타의 이름을 『쿠웨이트』라고 명명하고 쿠웨이트팀의 편의를위해 신경을 쓰고있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쿠웨이트팀은 지난해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예선에서 뉴질랜드를 격파하고 월드컵본선진출 티킷트를 얻자 명배우 앤터니·퀸이 출연한 영화에서 한때 스타로등장했던 낙타를 쿠웨이트의 마스코트로 정했다는것.

스페인월드컵 펠레리포트 ⑧
Sony Betamax SONY

브라질組織力 가장優勢
잉글랜드·蘇聯팀 優勝도전
팬過剩추태 자기나라 망신
守備치중 하던팀 모두脫落

1차리그가 막을 내리고 있다. 진짜 월드컵이 시작된다.

브라질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테레·산타나코치가 재건한 현재의 브라질이 58, 62, 70년에 우승한 과거 브라질 월드컵팀과 같은 수준을 갖고있는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전혀 편견없이 지금 스페인땅에서 브라질이 가장 정비가 잘된팀이라고 말하는것은 결코 이르지 않다.

브라질이 다른 팀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것은 브라질이 蘇聯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았을때 였다. 스코틀랜드는 정상적인게임을 하지않고 너무 수비에 치중, 브라질에 도전다운 도전을 못했다. 뉴질랜드는 브라질에 연습의 즐거움을 제공한데 그쳤고 그들 수비진 오른쪽은 뉴질랜드의 그 양떼가 지날만큼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브라질은 1차리그에서 3전전승에 득점10 실점2로 1백%의 성적을 거두었다. 브라질에서도 허물은 있었다.

나는 축구의 프로이며 브라질인이므로 브라질의 플레이에서 무심히 넘겨버리지 못할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몇몇선수는 위치선정에서 미숙했다. 경기의 상황이나 게임·메이커의 지도에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자기들이 임의로 선택한 장소로 옮겨졌다.

브라질팀이 결국 결승전에 나가 4번째 우승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거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간단한 한가지 예를들면 과거 선배들은 한경기에서 5~8년간 같이 성장했지만 현재 멤버들은 고작 1년밖에 같이 지내지 않았다.

대회 개막에앞서 최강 5팀 대부분이 2차리그에 진출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진출했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벨기에가 진출권을 잡았으며 西獨은 오스트리아와의 일전에 운명을걸고 있다.

강한 도전자로 2차리그에 등장한 팀은 잉글랜드와 蘇聯이다. 잉글랜드의 전천후적 능력을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은 쿠웨이트의 브라질코치 카를로스·알베르토이다.

과거 두차례에 걸쳐 본선출전에서 실패한 잉글랜드는 스페인에서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황태자가 첫 아들을 낳은일 등으로 화제를 만들고 있다.

일부 잉글랜드팬들은 지나친 응원과 소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황태자의 득남 기사와함께 『여왕폐하의 광란적인 팬들』이란 제목이 붙은사진이 신문에 함께실렸다. 이사진은 10대초반 두소년팬의 추태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게임이 시작되기전에 술을 마시고 유니언·잭 대신에 술병을 흔들었다. 어떤 젊은이는 경찰관에게 바지를 잡혀 벗어진 엉덩이에 「잉글랜드」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이고있었다.

전세계는 어쨌든 젊은이들의 말썽으로 꽉차있다. 경기중 브라질인들이 보이는 소란은 내용에서 잉글랜드와 다른것같다. 브라질의 소란은 음악적이며 신명나고 즐거운것이지 결코 폭력은 아니다. 경기장부근에는 싸구려 술이 많으며 경비경찰의수는 적다. 잉글랜드가 축구를 통해 얻은 명성을 무법행위로 손상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김희라 ◇윤복희 ◇정재은 ◇이덕화 ◇김세환

2世연예인 모임「藝成會」
22명 友愛 慈善 奉仕 다짐
선배등 招待 創立공연

2세연예인들의 모임인 藝成會(회장 金熙羅)는 19일 저녁 서울 하이야트호텔에서 창립총회겸 「부모형제와 함께」라는 자리를 마련하고, 가족·선배연예인 1백여명을 초대, 4시간동안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우애 자선 봉사」의 로간을 내걸고 출범한 藝成會의 회원은 모두22명. 이날 모임에는 왕년의 명우 金勝鎬·李藝春·許長江(이상작고)의 아들인 배우 金熙羅·李德華·許起虎, 배우 金振奎의 아들 鐵鎭 (사업)·眞(배우) 형제, 張東輝의 아들 張才煥(배우) 獨孤星의 아들 獨孤英才(배우) 黃海·白雪姬 부부의 아들 全永祿(가수겸배우) 金東園의 아들 金世煥(가수) 崔星湖의 딸 崔玉英(스튜어디스) 가수 高福壽 (故) 黃琴心부부의 아들 高英(가수) 연주인 崔用朔의 아들 崔炳傑(가수) 文一和의 아들 金南勳 (가수) 쇼기획자 尹富吉의 소생인 가수 尹恒起·尹福姬자매, 쇼기획자 鄭鎭治과 엘리지의여왕 李美子의 사이에서 태어난 鄭在恩(가수)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가수李美子의 모습은 보이지않았고 쇼기획자 金聖潭의 딸인 혜은이(가수)는 재미동포 위문공연중이라 자리를 같이 하지못했다. 그외 선배연예인으로는 申榮均예총회장, 千張鎬영협이사장, 朴一鎬연예협이사장, 朴一男가수분위장, 원로가수 金貞九·玄仁등이 참석, 2세연예인들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회장에 선임된 金熙羅는 취지문을 통해 『우리는 부러움속에서 성장했다. 팬의 기대에 최선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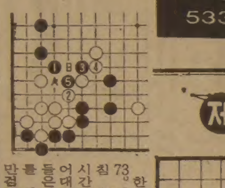
第2局 第6譜 65~76 (각5시간·덤5집반)
白 (名 人) 曺 薰 鉉 〈1勝〉
黑 (挑戰者) 徐 奉 洙 〈1敗〉

오랫동안 숙제거리였던 좌하귀는 결국 黑67로 선착했다. 白은 66의 수로 이곳을 막지못한것이 새삼 뼈아프다.

이곳은 실리의 차가 클뿐더러 白의 근거도 앗고있다. 名人은 위쪽66까지의 白일단과 더불어 두곳이나 미생마를 안게되었다. 白72는 20분. 우선 이렇게라도 해서 아래위를 연결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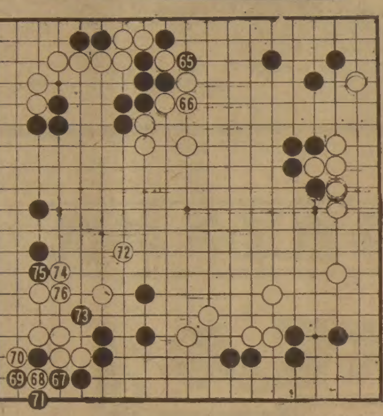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넓은 공간을 무사히 연결한다지더라도 연신 공배를 두어야하니 白의 앞날은 가뭄길이 없어보인다. 따라서 도전자는 이번에야말로 승리의 결정적찬스를 잡을줄 알았다.

白, 위기를 모면



한데 黑73 때마침 점심시간이되어 대국자들은 자리를 떴지만 검토실에서는 제법많이 모인 고단자들이 黑73을 보더니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73으로는 참고도와같이 黑1쪽에서 공격하여 白2면 黑3, 5로 끊고 또白2를 「A」면 黑「B」로 역시끊어 白을 일거에 궁지에 몰아넣을 시기였다는 것이다.

黑이방향을 잃은데는 식사후 재대국한 장면에서 보다시피 白은 76까지 大海로 힘들남아가 전체형세도 만만치않게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도전자는 계속 추격할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 【一凡】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⑮
流星의 賊 <417>
李炳注作 李友範畵

신불의 추궁에 의해 껍질이 하나 하나 벗겨져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 어떠한 항변도 용납되지 않게되자 이원용은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당당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음흉한 성격 그대로를 노출하는 표정으로 되어, 『네놈들 아니꼬운 버러지 같은 것들이 내 포부를 몰을 것이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개 돼지만도 못한 녀석이 포부는 다 무슨 포부냐』

신불이 벌떡 일어나 찔고있던 장검을 칼집채 추켜들어 이원용의 어깨를 후려쳤다.

『이놈아 함부로 쳐?』

하고 이원용이 이를 갈았다.

『누구 앞에서 입을 놀려』

신불이 다시 칼을 집어들었다. 계남이 신불을 말리고 입을 열었다.

『이 무엄하기 짝이 없는 놈. 아직 잘못을 뉘우칠줄 모른단 말인가. 죽음 직전에서나마 본 정신으로 돌아가란』

『본 정신? 나는 한번도 본 정신을 떠나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네 놈은 네가 한 짓이 아직도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넌 곧 죽게된다. 그때까지 반성의 여유를 주겠으니 회개하라』

『도마 위에 오른 고기가 무슨 반성을 한단 말인가. 죽이려거든 빨리 죽여라』

『종친으로서의 성씨에 대한 나의 배려다. 넌 반역도의 시신으로 만들긴 싫다』

『반역도? 내가 반역도란 말인가? 명나라에 붙은 임금은 반역도가 아니고 왜놈에게 붙었다고 내가 반역도야? 내 포부를 듣거라. 나는 왜놈과 손을 잡아 이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런데 실패해서 이꼴이 되었다. 나는 실패한 왕이다. 그렇다고 반역도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니다』

『저놈의 입을 틀어막아야지』

신불이 와락 일어서서 이원용의 입을 발길로 차 한꺼번에 두 세개의 이가 부러진 모양으로 놈의 입안에 피가 가득했다. 이원용은 피와 함께 부러진 잇발을 뱉어 내며 악을 썼다.

『이놈 신불아, 난 네놈을 잘 안다. 네놈은 이름도 성도 없는 천물이 아니냐. 천물인 네놈이 이 나라에서 받아온 대우가 뭐였나. 쓸개도 없는놈 같으니라구…』

『저놈의 아가리를』

하고 덤벼들려는것을 계남이 가까스로 막고 입을 열었다.

『그래 네놈은 나라로부터 대접을 못받았대서 왜놈에게 붙었단말인가』

『그렇다. 나는 종의 몸에서 났다고해서 어려서부터 괄시만 받아왔다. 그래서 이기회에 이따위 경우없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했다. 아니 내 스스로 뒤집어 엎으려는 참이었는데 왜놈이왔다. 그래서 나는 왜놈과 손을 잡았다. 명나라에 붙어 명맥을 유지하려는 놈들에 비해 다를게 뭐있느냐 말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치십시다』

초인식의 전의였다.

그런데 홍계남은

『저놈을 그렇게 쉽게 죽일순없다. 스스로 죽게해야지』

하고 명령을 내렸다.

『저놈의 코를 찌어라』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45>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㉕

『집이 어디냐니까?』

일환이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오목이는 깜짝 놀라면서 일환이를 쳐다보았다. 엇갈리는 차들의 불빛을 따라 그의 얼굴에서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짐작 할수도 없었다.

『나 요새 춘자하고 같이 있어. 오빠도 알지? 춘잘』

『춘자라고?』

일환이가 그녀를 뿌리칠듯이 놀랐다.

『당분간이야』

오목이는 서둘러서 덧붙였다. 그녀는 우선 그의관심을 끌수 있었다는게 반가와서 조금 생기있어졌다.

『하필 왜 그 계집같은 계집애하고…』

일환이가 그녀를 거칠게 밀어내면서 씹어뱉듯이 말했다.

『그럼 어떡해? 갈데가 없는걸』

『진작 나테라도 오지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 오빠 있는데 알아내긴 뭐 쉬웠는줄 알아』

『이런 꼴이 되려면 뭐하러 그 좋은 집에서 나왔나?』

그는 뿌리쳤던 오목이를 끌어당겨 부드럽게 감싸면서 말했다. 일환이다운 정이 깊고 순한 목소리에 그녀는 흠찟 흠찟 울고싶은걸 억지로 참아냈다. 체면이나 예절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불투명한 벽의 느낌때문이었다.

『오빠가 뭘 안다고 그 좋은 집이래? 수양딸만 시켜주면 좋은가 뭐』

『왜 모르니? 널 보면 알지』

『날 보고?』

『그래 널보자 마자 알겠더라. 고생 모르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보호받으면서 살았다는걸』

별안간 상실감이, 절대로 돌이킬수없는 상실감이 괴물처럼 그녀를 엄습했다. 그녀는 비명처럼 부르짖었다.

『오빠가 그 사람들에 대해 뭘 안다고, 암것도 모르면 가만이나 있어, 제발 나 화난』

어느듯 울먹이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야 물어?』

진작 물었어도 무슨 말을 할수 있었을까? 입적을 시켜주겠대서, 성을 갈기가 싫어 뛰쳐나왔다고 말할수밖에 없었겠지. 일환이라면 춘자하고 달라서 그걸 이해해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어서 되려 그녀자신 기억할수도 없을 때부터 지속되어온 어떤 진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음 직했다. 몰라줄 사람에게라면 모를까 헤프게 꺼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네가 너무 철딱서니 없이 사치 부린것 같아 몹시도 싫었어』

『춘자도 그랬어. 들어온 복을 차내버렸다고 허구헌날, 나를 구박했어』

『거 봐. 아무려면 춘자 신세 지는거에다 대니?』

『이제부터 춘자 신세 안 지면 될꺼 아냐?』

『어떻게?』

『오빠 신세 질테니까』

그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모른다. 아마 미리 별렀다면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다.

『내 신세를?』

『그래 오빠 신세를 지고 싶어』

『춘자가 가르쳐주던? 남자호리는 법을』

『오빠 제발 춘자를 나쁘게 말하지마. 걔가 그동안 참 잘해줬어. 며칠 안되는 동안이긴 했지만 그동안에 나 많이 철들었어. 이제야 세상사는 물정을 좀 알것같아. 오빠말을 이해하게된 것도 실은 오년동안이 아니라 그며칠동안이었어』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의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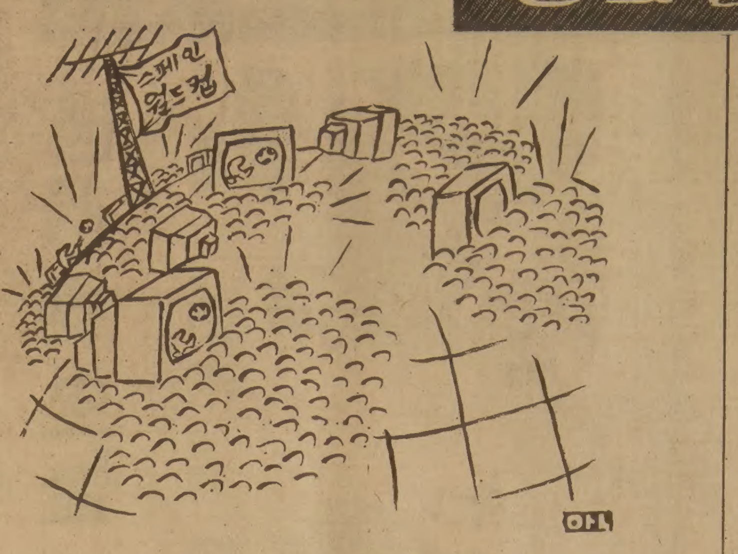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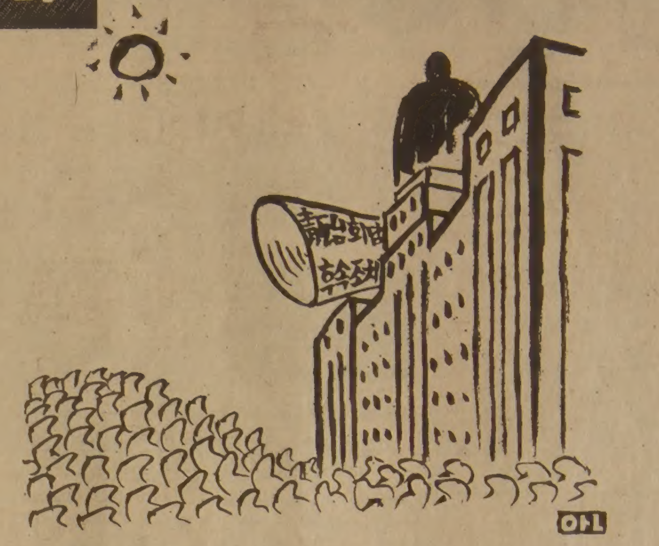
週刊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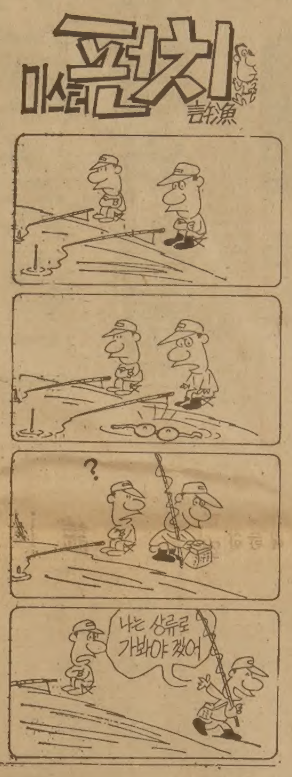
영어의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안의섭 時事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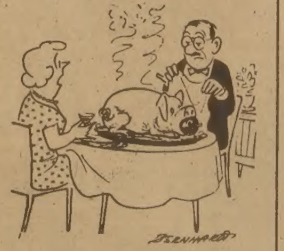


7億人口가…과연「世界의 祭典」!


모두가 기다리고 있읍니다…



해외걸작만화


"You had it for lunch?"
「점심으로 해치운다고요?」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⑦

●꼬시는 秘訣 6章

세계적인 섹스 전문지 포럼(Forum) 최근호는 남성이 손을 하나 까딱 안 해도 여성이 와 붙는 비결 특집을 했다.

How to make her beg for your body, 즉「어떻게 행동하면 여자가 스스로 와 붙나」하는 주제다. 직역하면「당신 몸뚱이를 달라고 그녀가 구걸하게끔 하는 비법」이다.

매우 뛰어난 논조다. 상당한 시일을 섹스 방면의 글을 써 온 필자도 과연 그렇다는 동감이 갔다. 그래서 그 비법공개를 해두기로 한다.

물론 둘이 함께 젖는 엉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더 잘 꼬시고 더 못 꼬시고의 차는 물리적으로 오는 현상이 아니다. 여자가 스무 살 넘으면 자주 주고 싶어지는 생리현상이 되는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물론 남자도 고지점령 하나에 만족 못하고 자꾸 짓발 꽂는 일을 하다 보면 패가망신한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문제로 알거지된 남성은 존경의 눈초리로 보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같은 데서는 잡혼다고 한다. 유태 격언에는 여성에 접근하는 일을 화근에 접근하는 일로 보고 있다.

우리도 주색으로 패가망신한 남성을 공자 덕택에 존경까지는 안한다. 의외로 처절한 전쟁 밑바닥에는 여자 개발의 생리가 예부터 깔려 있다는 거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자.

비법의 첫째는「그녀 이야기를 다 들어 주라」(Listen to her)는 거다. 그녀로 하여금 오만가지 자기의 거구한 팔자 이야기를 다 털어 놓게끔 이 쪽은 귀만 기울이고 있는 거다. 이 쪽이 입을 자주 열면 실패다. 주로 듣는 일만 한다. 진성으로 듣는게 아니고, 화장품 이야기 하나도 신경 써서 들어 주는 거다. 쉽지만 실천은 매우 힘들다.

이 쪽 전시욕으로 자주 입을 열면 실패율이 많다. 요즘 여성들은 옛 여성들과 달라서 매스컴으로 잘 훈련된 세대다.

둘째, 이 쪽이 잘난 척해선 안된다(Don't try to impress her). 즉 뻥까지 말라. 여자 쪽은 뻥을 까게 하고, 듣고만 있으면 된다는 첫째와 상통하는 비결이다. 남자가 이야기하는 빈도보다 여성이 떠들게 두는 기술이 첫째와 둘째라는데 주목하면 된다.

수호원(秀浩園)이라는 중국 음식점이 광화문 큰길가에 있었다. 이 집 2층 벽구멍을 통해 필자가 직접 해본 관찰이 이 대목에서도 딱 들어맞는다.

우동·탕수육, 때론 해삼탕까지 서켜 먹이고도 성사 안되고 후퇴하고 나가는 남성들 거의 다가 자기 자랑을 떠벌이는 타이프들이었다. 여성이 털어 놓는 오만가지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입 딱 다물고 시종 미소 하나만 품고 긍정적으로 듣고만 있던 남성은 거의가 다 짓발을 올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일을 나는 확인할수 있었던 거다.

이 쪽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참고, 저쪽 이야기를 죄다 들어준다는 일은 하나님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여자의 존경을 크게 사게 된다.

니체도 말했다. 하나님에게도 지옥이 있다. 이 구질구질한 구더기 같은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점이다라고. 한 말을 연상하면 된다. 구질구질한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이는 하나님 밖에는 실은 하나도 없다.

세째, 손 먼저 내밀지 말라(Don't paw her). 자제하는 일이다. 저쪽 손이 나오기 전에 이 쪽서 내밀면 경계·비상태세·초비상 단계로 들어서게 되어 결국 놓치고 만다.

네째, 산뜻하고 빳빳하고 서둘지 말라. 실은 여유 있으라는 영어(Be Cool) 두 마디인데, 우리말로 옮기려면 오만가지 뜻이 나오게 된다. 영어로 비 쿨—이라고 기억해 두는 편이 쉽다. 이 말은 냉정하다라는 말에서 온 뜻인데, 저 쪽이 열기 있는 듯 보일수록 이 쪽은 차가와지라는 거다.

이면은 여성이 남성을 끄는데도 똑같다. 여우와 늑대의 차이 정도가 날 뿐이지, 쌀쌀맞은 여자일수록 남자를 후끈 달게 만드는게 사실이다. 여성에 하고 싶다. 혹은 해 주었으면 하는 면 언질을 주기 전에는 자제하는거다.

이것은 동서양·고전이 똑같다. 정(靜)은 늘 동(動)을 이긴다. 혹 고요는 늘 열(熱)을 이긴다는 거다.

갈라디아서(書)를 보면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고, 부드럽고, 선하고, 충실하고, 겸손하고, 자제하고, 이 아홉 가지가 있어야만 영혼의 열매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제력을 지니고 여성이 암시를 먼저 줄 때까지 비 쿨하는 거다.

다섯째, 첫마디가 인상 깊어야 한다(Use the best opening line in the world). 어려운 문제다. 상대가 계모 솔하인 때는 서로가 같은 처지 언듯 인상에 깊이 남을 발언으로 시작되어야 먹을수 있다는 거다.

관찰이란 상대편 여성 혹은 남성을 파악하는 눈이라고 한다. 관세음보살의 눈 정도 동원되어야 한다.

여섯째, 상대방 눈초리에서 당신의 눈초리를 빼지 말라(Never break eye contact). 딱 미소 좋은 한 마리 거머리같이 그녀 두 눈동자를 물고 늘어지는 거다. 먹느냐, 먹히느냐, 불꽃 튀는 순간을 눈알 접촉으로 전달하는 거다. 시선은 때로 천마디 말보다 효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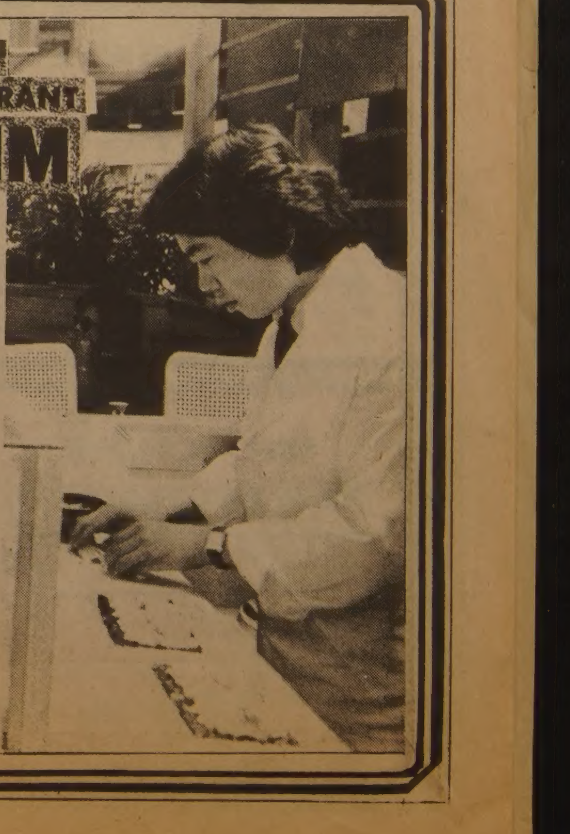
상대방이 지독한 근시나 소경 아닌가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한다.

여자값을 정하는 쪽은 고금동서 어느 시대고 남자 쪽이다. 그러나 섹스를 주고 받는 일은 아차하는 사이에 어느 쪽이 당한다.

이상 든 여섯가지도 요사이 여성들은 거의 다 역(逆)으로 남성 표시는데 사용하고 있다. 결혼전에는 무슨 말이든 묵묵부답으로 다 들어주는 듯했던 미륵보살 같던 여자가 결혼후에는 악귀(惡鬼)같이 진종일 주절대고 날뛰는 꼴을 남편이 보아야 할 신세되는 수도 많다. 실로 하나님만 아실 문제다. 〈계속〉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HO SHIM



제일 큰 고층빌딩내「호심」에서 한번 시식하십시오.
맛있는 한식과 일식을 토론토에서…

놀랄만한
저렴한 음식 가격!

*예:	불고기	$4.95
	튀김만두	3.95
	비빔밥	4.50
	스 시	3.75~9.95
	기 타	

*FAST TAKE OUT SERVICE
*단체도시락 주문에 응합니다.
*단체연회 특별봉사

주류판매 개시
주류허가가 나와 22일부터 써비스하고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토요일은 예약시에 엽니다

저녁6시 이후에는 도로변 주차가능, 부근주차장도 주차료 저렴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 ☎: 368-0686

週刊한국 스포츠

青龍 白仁天 감독 審判에 어필 잦아 관중야유

三星 吳大錫선수 첫 사이클히트 기록

◇프로야구 첫 사이클 히트의 주인공 吳大錫。

三星·라이언즈의 유격수 吳大錫이 한국프로야구 첫 사이클 히트를 기록했다。

吳大錫은 지난12일 釜山구덕운동장에서 벌어진 三美슈퍼스타즈와의 경기에서 3번타자로 나와 1회초에 3루타, 3회초 2루타, 5회초 좌전안타, 6회초에 홈런을 날림으로써 영예의 첫 사이클 히트의 주인공이 된 것。

吳大錫은 이날 1회초 三美선발 金在炫으로부터 2타점 우월 3루타를 빼낸뒤 3회초에는 구원투수 印浩鳳에 좌중간을 뚫는 2타점 2루타를 얻어냈다。

이어 5회초에는 좌전안타를 날려 홈런만을 남겨 놓은채 사이클 히트를 넘보게 됐다。

1·3·5회 1·2·3루타치고 6회 韓尙演공략, 홈런 뽑아

吳는 6회초 4번째 타석에서 三美의 3번째 구원투수 韓尙演을 공략, 우중월 2런홈런을 뽑아 냄으로써 프로야구에서 첫번째 사이클 히트를 기록했다。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때려야하는 사이클 히트는 그야말로 개인타격으로서는 가장 달성하기 힘든 기록이다。사이클 히트는 강타의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운이 또한 따라야 한다。

『처음 3루타를 때렸을때 2개의 홈런을 치면서도 3루타를 못 때려 사이클히트를 놓친 李鍾道선수(MBC)의 생각이 나더군요。그러나 감히 사이클히트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읍니다。2루타를 치고 3번째 안타를 칠을 때는 홈런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읍니다。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놓고 휘둘렀고 제가 잘 때렸다기보다 잘 맞아준 것 같습니다。』

大邱商—漢陽大를 거쳤고 1m78, 75㎏의 체격을 가진 명유격수。106타수 36안타, 타율 3할4푼으로 타격 8위를 마크하고 있다。

○…日本프로야구에서 20년간 선수생활을 했던 MBC靑龍의 白仁天감독은 국내프로야구출범과 함께 금의환향, 시원한 타격으로 프로야구붐 조성의 선두주자로 나서 팬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있으나 매게임마다 심판에게 어필, 게임을 중단시켜 관중들의 야유를 받고있다。

白감독은 지난12·13일 양일간 大田에서 열린 OB베어스와의 2연전에서 4차례나 심판에게 어필, 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지난 13일 OB와의 대전。9회말에 OB의 9번대타 金裕東이 李吉煥의 폭투를 머리에 맞고 쓰러지자 덕아웃에 있던 OB선수들이 白감독에게 『사람잡는게 靑龍이냐』며 야유를 퍼부었고 白감독은 OB덕아웃까지 쫓아가 『감독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후배선수들에게 금새라

4심합의로 내린 판정에도 不服·경기중단
덕아웃까지 後輩선수 쫓아가 덤벼들듯도

도 덤벼들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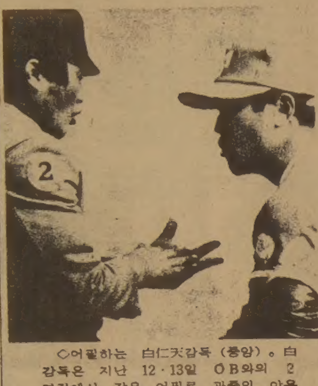
한편 12일 경기에서도 白감독은 7회말 4심 합의로 내린 판정에 불복, 선수들을 덕아웃에 불러들여 경기를 20분간 중단시켰는데…。

7회초 2점을 올려 3-3의 타이를 만든 MBC는 7회말 수비에서 2안타와 포볼1개를 허용, 1사 주자만루의 위기를 맞았다。

이때 OB 5번 申慶植의 타구를 MBC 1루수 金容允이 잡아 홈에 뿌려 홈에 뛰어들던 金裕東을 포스아웃 시켰으나 포수 金容雲이 다시 1루에 던져 병살을 시도하려던 것이 타자주자 申과 1루수 金容允이 충돌, 金이 볼을 빠뜨려 실패하고 말았던 것。

白감독은 申의 수비방해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4심합의에 따라 白감독의 어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白감독은 선수들을 모두 덕아웃에 불러들여 게임이 20여분간 중단됐다。


◇어필하는 白仁天감독 (중앙)。白감독은 지난 12·13일 OB와의 2연전에서 잦은 어필로 관중의 야유를 받았다。

프로야구 席

복싱

◇라울·발데스 와의 타이틀 5차 방어전을 앞두고 맹훈중인 金喆鎬。

발데스 그렇게 두려운 선수 아니다

金喆鎬 지명방어전 相對…가렸던 면모 드러나

26일 저녁 大田 忠武체육관에서 金喆鎬(21)와 WBC슈퍼플라이급 타이틀매치를 벌일 도전자 라울·발데스(멕시코)의 베일에 가렸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발데스는 54년1월6일생으로 만 28세의 노장선수 73년 프로에 데뷔한 이래 41전28승(7KO) 4무 9패를 기록하고 있는 노련한 복서다。

현재 WBC동급 1위에 랭크, 지명방어전을 갖게된 그는 전적에서 보여주듯 주먹의 강도보다는 테크닉을 위주로 하는 방어형이다。

金喆鎬가 특히 싫어하는 왼손잡이인 발데스는 원투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 하면서 특히 받아치기를 잘하는 선수로 알려졌다。

주먹보다 테크니크 위주의 방어형
41전28승(7KO)4무9패기록…28세의 노장

그는 또 41전의 링캐리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아온 관계로 임기응변에 능하며 상대의 공격이 날카로울땐 클린치로 교묘히 상대의 공격을 무마시키는 기술도 갖고있다。

이상에서 볼때 발데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두려운 선수가 아닌것 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金喆鎬가 처리하기 힘든 왼손잡이인데다 많은 경험을 쌓고 있고 복싱의 본고장인 中南美에서 계속 경기를 해왔으며 어쨌든 그가 현재 랭킹1위를 마크하고 있는 점등을 보면 결코 만만한 상대만은 아님을 알수있다。

金喆鎬는 지난 5월3일 처음으로 발데스의 경기필름을 입수, 필름을 분석한 결과 해볼만한 상대라는 자신감을 갖고 맹훈련에 들어갔다。

金선수는 왼손잡이를 잡기 위해 국내 왼손잡이인 주니어 플라이급 申喜燮을 스파링 파트너로 기용하고 있다。

金선수는 또 발데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복부가격과 전격적인 롱훅이라고 판단, 이 부분의 훈련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金喆鎬가 이번 5차방어전에서 승리할 경우 그의 타이틀 롱·런은 쉬울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방어전이 큰 관문이 되고있다。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사건 인플레 심리>
수십명 사망, 몇천억대 사기같은 푸짐한 뉴스만 듣다보니 한자리 숫자 사건은 아예 흥미조차 없다。
장률 (한국낙서회)

<돌고 돈다>
술잔이 돌고 잡담이 돌고 노래가 돌고 취기가 돌고, 그리고 술값은 누가 낼까 하고 서로의 눈치가 돌고 돈다。
—엉성한 친구들—
당나귀 기침

<어린이 입장불가>
그럼, 「어른 입장불가」도 있어야 해요。
—어린이들—
큰아이 (동화낙서인)

<용꿈을 꾸었는데>
야구장에서 홈런볼을 받으려다 눈을 맞아 퍼렇게 멍이 들었다。
—야구장에서—
열주와 공운이 (土月文友會)

지금 웃는중 落書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장많이 꽂힌 국기?>
네팔기。
염리동호랑이(전국낙서문학회)

<가장 먼 이웃?>
이름조차 모르는 바로 옆집 사람。
동대지기

<하늘엔 눈이 두 개>
하나는 붉은 눈인 태양,
하나는 노란 눈의 달。
두 눈을 꽉 감으면 캄캄한 세상。
秋木 金天國 (土月文友會)

<호랑이 같은 남편>
토끼 새끼같은 자식은 꽉 깨물어주고 싶고, 여우 같은 마누라는 꽉 물어뜯고 싶다。
임헌배

<소녀의 꿈>
여덟 살 때는 거울을 몰래 훔쳐다 보고 속눈썹을 길게 그렸어요。
열 살때는 나물 캐러 다니는 것이 좋았지요。
열두 살 때는 연꽃 수놓은 치마를 입고 거문고를 배웠어요。
은같도 빼지 않았지요。
열네살 때는 왠지 머슴아들을 보기가 부끄러워 부모님 뒤에 꼭꼭 숨었어요。
열다섯살 때는 봄이 까닭 없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네줄 잡은 채 얼굴 돌려 울었지요。
김선혜 (토월문우회)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의 眞價가 발휘된 사건이었지。
—우순경 사건에 대한 파리들의 대화에서—
맹갈

<대학병원>
약으로보다 오히려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곳이옵시다。
몽지랑붓 (화양동사무소 입구 OB시음장·걸작낙서전시)

<성질 급한 사람>
모내기를 해놓고 낫을 갈아놓는 농부。

★<뽀뽀의 의미>
어느 집 담밑에서 두 남녀 꼬마가 놀고 있는데, 남자 꼬마가 갑자기 여자 꼬마를 끌어 안으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자, 여자 꼬마는 『너, 나 책임질 수 있어?』라고 했다。
방계숙

<알뜰가정의 절약이불>
김선형 (토월문우회)

<어느 家長>
김용화

<이럴 수가…>
곗돈으로 마련한 모처럼의 쇠고기 요리를 한입 가득 넣었는데, 하필 재채기가 나오다니…。
—서 민—
배람석 (전국낙서문학회·유싸리 후더기)

<기분 나쁜 명함>
앞으로 잘 부탁한다면서 내민 장의사집 명함。

<李·張부부 官製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감방에서는 官食은 안먹고 私食만 먹더라。
원필연 (중흥의 미떠올)

<수학선생의 권태기>
마누라가 예뻐 보이는 마음은 산술급수적으로 생기고, 싫어지는 마음은 기하급수적으로 생긴다。
新基淳

<측량사 아저씨!>
만날 때마다 마음이 변하는 아가씨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려 줄수는 없나요?
—답답한 남자—
불나비 (土月文友會)

<기현상>
부부싸움 많이 한는 집이 애 많이 낳더라。
가을치 (한국낙서회)

<정정합니다>
「英子의 전성시대」를 「億子의 전성시대」로。
××영화사
원필연

<계속되는 불경기사태>
우리에게는 한없이 즐겁습니다。
—파리채 장수—

<다섯살 짜리 우리 꼬마의 궁금증>
이상하다—닭장에서는 닭이 자는데 모기장속에는 왜 사람이 잘까?
정릉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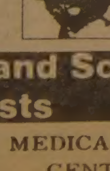
◇알림
★이번주의 최우수작은<뽀뽀의 의미>입니다。방계숙양/축하합니다。<사건인플레심리>도 우수작이었읍니다。
이번주의 상품도 각종 등산장비전문메이커인 한라스포츠 (☎0925) 가 제공하는 등산용 배낭입니다。
★재미있는 콩트도 대환영합니다。특히 지방독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에 원고마감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久>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공 고

금번 한인회에서는 교민 체력향상을 위해 한인친선야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 시 : 7월31일(토) 오전 8시30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 야구장
참가비 : 팀당 $60(주장회의때까지 납부)
종 목 : O.B. 팀 (전원이 30세 이상으로 구성)
대표팀 (중복출전 불가)
주장회의 : 7월23일(금) 오후 7시30분 한인회관
시 상 : ○. 대표팀 1, 2, 3등
최우수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 O.B. 팀 1, 2등, 최우수선수상, 미기상, 감투상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 어쏘시에이션) 룰을 적용하며 상세한 것은 주장회의에서 결정함.

연락처 : 하주용 ☎ : 769－5956 박재선 ☎ : 755－6434 브랜든운동구 ☎ : 598－3732
대회장 : 박인순, 고문 : 김문량, 진행위원장 : 박재선
심판위원(무순) : 정세용, 조동식, 박세영, 윤호영, 장인택, 최광준, 박재선, 조용덕
찬조금 명단 : 백이삼 $100 서춘원 $100 이회용 $100 서동헌 $50
이인모 $50 호세환 $50 표봉길 $60 조규혁 $50 윤용탁 $50
장영대 $50 이홍규 $50 박해영 $50

주최 : 토론토한인회체육부
후원 :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BE MY GUEST.

직장에서 coffee break (코피마시는 휴식시간) 에 미국인 동료 옆에 난 빈자리를 가리키면서 May I sit down? (앉아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미국인이 Be my guest. 라고 하였다. 「물론 앉으시오」 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볼펜 좀 빌려 주시겠읍니까?」 May I borrow your ball point pen, please?라고 물어오는 상대에게Be my guest. 라고 하면 된다. 「전화 좀써도 될까요?」 May I use your telephone, please? 이같은 경우에도 「어서 쓰세요」 라는 뜻으로Be my guest. 라고한다.

A : Is this chair taken? I see a coat in it.
B : Oh, that's mine. Let me take it.
A : Are you sure it's alright if I sit here?
B : Sure, be my guest.
A : Well, O.K. then. Thank you.
B : Think nothing of it.
A : 이 의자에 사람이 있나요? 코트가 있군요.
B : 아, 제 겁니다. 제가 코트를 들어내죠.
A : 제가 여기에 앉아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B : 물론이지요. 어서 앉으십시오.
A :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B : 천만에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쾌히 승낙을 하고 얼마나 필요한지까지 물어 본 다음 막상 꾸어 주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아차, 생각해 보니까 지갑을 가져 오지 않았군요.」 Oh, no. Come to think of it, I forgot to bring my wallet.

이와 같이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어떤 것이 연상되었을때 「생각해 보니까~」 라고 할 때 미국인들이 일상 회화 에서 사용하는 말이 바로 Come to think of it, ~의표현이다.

「이걸 내일까지 발송해야 하는데요」 We have to send this out by tomorrow. 라고 하니까 곁에 있던 직원이 「아, 생각해 보니 내일이 휴일이군요. 우체국이 문을 닫습니다」

Oh, no. Come to think of it, tomorrow is a holiday. The post office is closed. 라고 한 것도 상대편이 한말에 생각이나서 한 대답인 것이다.

「가게가 오늘 문을 열지않았다」는 The store is closed today. 라고 하며, 「상점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몇시에 열어서 몇시에 닫는지를 묻는 경우는 What are your hours? 「9시~6시 까지 엽니다」고 할 때는 We're open 9 to 6. 와 같이 한다.

또한, 「얼마나 늦게까지 가게문을 엽니까?」라고 하는 적절한 영어의 표현은 How late are you open? 라고 하며, 대답으로 「9시까지 엽니다」라고할때는 Until 9. 하면 된다.

A : Can I borrow some money?
B : How much do you need?
A : A couple of dollars will be O.K.
B : No, wait. Come to think of it, I forgot to bring my wallet.
A : I guess I have to ask somebody else.
B : Maybe you can borrow some money for me, too.
A : 돈 좀 꾸어 줄래?
B : 얼마나 필요하니?
A : 2불이면 될 거야.
B : 잠깐, 생각해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 왔구나.
A :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군.
B : 내 몫까지 꾸어 볼 수 있겠구나.

海外걸작漫畵

『자네 가정문제에 간섭할 생각은 없네만…』
"Dawson, I don't like to interfere in your domestic problems, but…"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0

지난줄거리

송찬은 정릉 산장을 지키고 있다가 갑작스레 박명수를 잡아냈다. 애들은 그냥 일을 저지르자고 했지만 피해자인 탤런트 연미희를 보호하기 위해 산중턱으로 끌고가 처도끈이를 냈다. 박명수는 더 버티지 못하고 뭉쳐먹은 여자들 숫자와 돈 액수를 털어놓았다. 통장과 패물을 내놓고 일본으로 빼돌린 돈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있게 된다.

아파트 계단 옆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황마담이 문을 열어줄지 의문이었다. 보통 손님은 맞아들이지 않는 비밀요정이란 걸 알기 때문이었다. 오십평이 넘는 아파트 두채를 어용한 황마담의 비밀요정은 사전에 계약하거나 황마담이 인정하는 신분이 아니면 범접할 수조차 없는 성역이었다.

비밀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사전에 계약할 수 없다고도 했다. 나는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라도 들어갈 작정을 하고 나선 길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고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특수한 장치로 밖에 서있는 사람의 신원을 안에서 확인하는 곳이란 얘기를 들었다.

『장부장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라고 했읍니다.』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안에서 화면으로 내 태도와 내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조금 긴장되었다.

『누굴 찾으시는데요?』

『황여사님요.』

『잘못 오신 거 아니세요?여긴 그런분 안계신데요.』

『잠깐만요.』

나는 수첩에서 장부장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확실히 여기예요.』

나는 특수 카메라가 어느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 가능한대로 명함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장부장님 새로 모시게된 미스터 김입니다.』

『그럼 프러듀서가 바뀌었나요?』

『예, 어제 발령 받았읍니다.』

나는 속으로 놀아지게 웃었다. 내 작전이 대충 맞아 떨어지는것 같았다. 연예가의 불귀신이라는 장부장을 잘 팔기만 하면 황마담의 비밀요정을 들어설수 있다—애들의 말이 맞는것 같았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나는 내 얼굴이 나 모르게 화면에 비추어진다는 사실이 싫었다. 계단쪽으로 얼굴을 돌린채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첫 눈에도 대단한 미인이었다. 나는 들어서며 재빨리 내부를 훑어보았다. 호화아파트보다 더 세련되게 꾸며진 구조였다.

『이리 앉으시죠. 언니 나오실거에요.』

여자가 자리를 권했다. 등나무로 만든 소파에 가대어 앉았다. 불편한 자리였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담배를 빼어 물었다.

『이걸 태우시죠.』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종아리가 퍽 놀씬하다고 느꼈다. 속살이 거의 보이는 옷, 젖꼭지의 검붉은 자국과 음모부위까지도 느끼는 얇사한 옷속으로 그녀의 몸매를 읽을수 있었다. 이제 갓 스무살쯤 되어보이는 이 여자를 어디선가 본것 같았다.

『많이 본 얼굴인데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조용하게 웃었다.

『십일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인 탤런트 모집에 끼어든 여자였다. 이 비밀요정에 오면 새파란 애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 십일기라면 일년이 조금 넘은 초년병들이었다.

『요즘 뭐 하죠?』

『연속극에 나가요.』

『단역?』

『예, 저 성주연에요.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 겁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부장님께서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셨을 거에요. 절 귀여워 해주세요. 열심히 할테니 저를 잊지 마세요.』

마주 앉은 모습이 너무 선정적이었다. 앉음새가 흐트러져 있었지만 추악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어 있었다. 깊게 파인 가슴도 젖무덤 부위가 드러났지만 밤거리의 여인처럼 후줄근해 보이는 몸매가 아니었다. 팽팽한 탄력, 깨끗한 피부, 저절로 흔들릴 것 같은 율동미를 느낄 수 있었다.

황마담이나 장부장의 불가사의한 힘이 어떤 것인지 윤곽이 잡히는 기분이었다. 어쩌면 장부장이나 탤런트들에게 엉겨 센 프러듀서와 가요계 여인들을 쥐고 있는 사내들이 황마담에게 얽혀 사는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 귀여워하면 손해는 안볼거예요, 보답을 드릴께요
우리나라서 어느 놈은 일한만큼 배터지게 받겠니?

방안을 훑어보았다. 모조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골동품들이 벽에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고서화와 현대화들이 정연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장식이나 청동제품, 돌조각들의 진열도 보통 솜씨가 아니었다.

이렇게 잘 꾸며진 방은 별로 본 적이 없었다. 김갑산 영감의 방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큰돈 만지는 재벌들 방안도 이렇게 중후하지는 않았다.

『절 귀여워 해주시면 손해는 안볼 거예요. 그만한 보답을 해드릴께요.』

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쳐다 보았다. 까만 동공이 빛나고 있었다. 나같이 연속국 안보는 사람에게 낯이 익은 걸 보면 제 출연이 잦은 여자인 것같았다.

『학생이죠?』

『예, 연극영화과에요.』

『여기는 왜 왔죠?』

그녀는 고개와 어깨를 까딱 흔들었다. 묘한 대답이었다. 알 필요 없는 말대꾸 같기도 했고 알면서 왜 묻느냐는 투이기도 했다.

『안으로 들어오시래요.』

안에서 성주연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매없이 입고 나온 양복과 넥타이가 퍽 불편했다. 피출을 한번 만져 보았다. 이런 규모의 비밀요정이라면 텃세를 할만한 어깨들이 황마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점잖이들을 만나러 다니며 느낀것은 가능하면 살이 붙었다는 주먹파 표창장을 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서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저 그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힘의 부당함 같은걸 느끼고 있었다.

가운데 둥근 소파에 앉은 여인도 낯익은 마담이었다. 왕년의 스타였다. 내가 어려서 도둑극장을 다닐때 어린 내 가슴에서도 선망의 대상으로 남아 있던 영화배우였다. 서글서글한 눈매, 적당히 살이 오른 몸매, 아직도 윤기 도는 피부가 왕년의 스타다왔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김입니다.』

『반가와요. 앉아요.』

황마담은 자리를 권했다. 차탁 위엔 향긋한 차내음을 풍기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제가 어려서 화면으로만 뵙고 싶은 분을 뵙는 건 처음입니다.』

『고마와요. 장부장 부서로 온 모양이죠?』

『예.』

『내 얘길 하던가요?』

『자주 하세요. 황여사님께 귀염받게 굴라고요.』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쇼 프로그램을 맡을 것 같습니다. 장부장님께서 황여사님 찾아뵙고 가르침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찾아뵈었읍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며 내가 제 사기술에 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점장이가 남을 속이지 마라고 했었다. 한번 속이면 열번 속는 꽈를 잃을 거라고도 했었다.

『장부장도 오기로 했다죠?』

『예.』

『이상해요. 꼭 미리 연락하고 오는 사람인데.』

『같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의가 열렸어요. 저더러 미리 가있으라시더군요. 오늘은 아마 귀한 손님 모시고 올 모양입니다.』

『누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큰 손님 가실 거라고 하던데요.』

『아, 그럴 거에요. 전부터 말했지요.』

황마담은 방송국 내부의 문제를 제깊숙하게 물었다. 나는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별로 아는게 없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눈치 챌것 같았다.

내가 애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연예인들을 등쳐 먹거나 연예계 여자들을 미끼로 내세워 돈을 챙기는 찰거머리들은 소수라고 했다.

『얽히고 설켜서 다 그런것들 아니냐? 뻔할 뻔자 아냐?』

녀석한테 내가 은근히 채켰다.

『나도 첨엔 그럴줄 알았지. 안에서 들여다 보면 달라. 더럽게 고생하고 쥐꼬리만큼 받는 애들야.』

『그만큼 받으면 상류 아니냐?』

『고생하는 거에 비해선 동냥하는 셈이란 말이다.』

『우리나라서 어느 놈은 일한만큼 배터지게 받는 사람 있니? 악착같이 알겨 먹으려고 눈깔에 불을 켠 판에 말이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도 제 아귀찬 찰거머리들이 있지. 배역 선정하고 파우치 조정하고 출연자 점 적을 수 있는 몇 놈들이 다 해처먹으니까.』

『꺼내 놔.』

녀석은 내가 꺼내 놓으라고 하자 주절주절 늘어 놓았다. 연예계 애들과 몇년 어우러져 돌아다닌 실력이었다. 녀석은 그쪽 사정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았다.

·비판잘하는 놈이 똑똑하다는 인식도 문제는 문제야
사람끼리 오락기구로 느끼는 감정, 얼마나 지속될지

『장부장이 왕초격이지. 그 자식은 철저해. 주면 준만큼, 안주면 안준만큼 반드시 지키는 놈이지. 노래 한곡 보내며 봉투 넣어주면 액면가 만큼 틀어주는 거야. 봉투가 없으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고… 그게 싫은 사람들은 아예 그 근처엔 가지 않아. 그런 반면에 나머지 피디들은 철저한 일벌레들이지. 건성으로 프로그램 짜기나 하고 모니터랍시고 프로그램이 어떠니 출연자가 어떠니 깐신대는 것들은 방송국에 들어가서 피디 노릇 열흘만 하면 제 발이 저려서 뛰어나올 놈들이지.』

녀석은 거품을 물고 프러듀서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임마, 뭔가 잘못 하니까 비판받는 거 아냐?』

『정말 뭘두 모르는 것들이 뭘보구 땡자땡자 한다더니 그꼴이지. 아가리로야 무슨 말을 못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 거져대저 쓰고 설렁설렁 만드는 깡통놀음인줄 알아? 밤새며 피 토하며 만든 거라구. 여전히 안맞고 부족하고 대갈통 나쁜 거야 부정하지 않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거야. 그 몇놈들 때문에 인식이 나쁜 뿐이지.』

『너, 아예 때려치우고 프러듀서 옹호위원회나 대변인 노릇 해라.』

『그러고 싶을 때도 있다구. 배부른 놈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프로그램 쏙 보구서 배부른 소리로 깐신대는 건 올바른 비판이 못돼. 비판하려면 근본적으로 애정의 전제 없인 이빨 까는 소리밖에 안돼. 뭐든 보구서 욕지거리하기처럼 쉬운게 어디 있어? 욕 못하는 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그렇다고 칭찬해 달라는건 아냐. 뭐 좀 알고 비판하든지… 비판 잘하는 놈이 똑똑하다는 인식도 문제는 문제야.』

『지랄 떨지 말고 장부장 얘기나 해라. 내가 필요한 건 다수의 고생하는 프러듀서 얘기가 아니라 장부장같은 찰거머리때들 얘기다. 황마담하고 어떻게 된 관계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개떡같은 자식들 얘길 들으라 이거다. 네 말처럼 어느 집단이든 그런 찰거머리때들은 있는 법이다.』

『임마, 나도 알만큼은 알아. 지금 고생하는 일꾼들 얘길 하자는 게 아냐. 장부장같은 찰거머리들 얘길 하자는 거야.』

『알았다.』

녀석은 장부장의 내력을 상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장부장같은 찰거머리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방송국안에 견고한 성을 쌓고 찰거머리처럼 연예인들을 뜯어먹고 산다고 했다. 신곡이 나오면 봉투나 몸을 댓가로 지불해야 하고 탤런트라면 배역을 맡기 위해 똑같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황마담과 장부장의 사업적인 결탁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장부장과 황마담의 사업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았다. 황마담이 연미희같은 탤런트를 박명수라는 사기꾼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소개비를 듬뿍 받아내고 저지른 장삿속이었다. 황마담의 부탁이면 장부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기용하는 끈끈한 인연이라고 했다.

황마담이 언제부터 신인들을 거느리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연예인이 필요한 사람이면 황마담과 협조체제를 만들어 황마담의 손길만 얻으면 된다고도 했다. 돈 많은 사내들은 황마담에게 두둑한 현찰과 연예인을 교환하는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대충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장부장과 그를 추종하는 거머리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과 황마담같은 고급 뚜장이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절실한 이해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이었다.

연예계 여자와 하룻밤을 즐겼다는것으로 남자의 정을 정었다고 믿는 철부지 사내와 그것을 이용해 먹는 뚜장이와 연예인들의 피를 빨아 치부하는 프러듀서의 상태는 한마디로 오락산업의 인간화라는 현대의 비극인지도 모른다.

장난감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복잡해지는 인간의 두뇌처럼 정교하거나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서 사람들은 사람을 오락적 기구로 등장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그 대표적인 것이 프로레슬링에서 프로권투로 넘어온 것 같고 여자가수가 오락산업의 주역으로 발돋움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사람끼리 오락기구로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파괴를 뜻하는 무서운 전쟁놀음을 유도해내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은 힘센 자의 특권인지도 모른다.

황마담의 표정은 재미 있다는 표정이었다. 나를 뭐 다그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빙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오늘까지 고급 뚜장이로 커온 배짱인지도 모른다. 여자이면서 같은 처지의 젊은 여자들을 돈 많은 사내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해낼수 있다는 건 보통 배짱으로 되는게 아니었다.

『이봐 총각.』

『네?』

『아뇨.』

『총각, 배 고파?』

계속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던 여자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를 불렀다.

『여기가 어딘줄 알고 들어왔어?』

황마담이 눈치를 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수는 없었다.

『황여사님 집 아닌가요?』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이냐?』

『어떻게 아셨죠?』

나는 배시시 웃었다.

황마담은 단번에 이렇게 나왔다.

『이 녀석아, 여기가 어디라는 것쯤은 알고 와야지. 건방진 녀석, 용돈이 필요하면 달라든지….』

황마담은 핸드백을 열었다.

『너, 얼마 필요하냐?』

만원짜리 몇장을 꺼냈다.

『이왕 들통 난 마당인데 그게 뭡니까? 황여사라면 손 큰 걸로 소문난 분인데 말입니다.』

『잔소리 말고 가지고 썩 나가라. 버락 치기 전에.』

『장부장한테 연락해 보실겁니까?』

『멍청한 녀석. 여기가 어딘줄 알고 들어왔냐?』

『이건 영화판 아닙니다. 대사 외운 걸로 얘기가 끝나진 않아요.』

『그럼 어쩔테냐?』

『좀 부셔줄까 합니다.』

『힘 있으면 부셔봐라.』

『그렇다.』

나는 소파 위에 있는 꽃병을 집어 들었다.

『이건 모조품이겠죠?』

나는 장식용의 여물통에다 꽃병을 내던졌다.

『이만하면 무단 주택침입에 폭행죄는 되겠죠? 엎어나보슈. 얼마나 못대가 센지 좀 봅시다.』

나는 황마담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고 블라우스를 찢어 버렸다. 황마담이 소리쳤다. 문이 벌컥 열렸다.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나보다 한뼘씩 더 커보이는 사내들이었다. 긴장한 어깨선과 가슴을 느낄수 있는 덩치들이었다.

『저놈을 죽여버려! 어서!』

찢어진 앞가슴을 여미며 황마담이 소리쳤다.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앉아서 말로 합시다. 덩치 큰 형씨들.』

『이 자식이 제법 귀엽게 노는군.』

한 사내가 여유있는 몸짓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형씨들이 더 귀엽게 노시는구만. 황마담 밑 닦아주느라고 끼웃끼웃대는 게 정말 귀엽다.』

『어허!』

사내들이 나를 에워쌌다. 황마담이 차갑게 웃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일보 事件기자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이번주엔 달러때문에 장안 화제가 분분했다。「큰 손」의 어음사기에다 金常起씨의 거액횡령등 돈 쇼크에서 미처 헤어나기도 전에, 김포공항에서 34만달러가 발견됐다는 한국일보 특종기사는 너무도 뜨거운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8명의 경찰이 張玲子집 절도범을 잡아준 뒤 사례금을 받았다해서 면직된 사실을 놓고 통념론(通念論)과 법리(法理)가 공 방전을 폈는가 하면, 한밤에 세들어 사는 처녀방에 침입한 강도가 처녀 3명을 욕보이고 돈까지 빼앗은 뒤 그 방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돈과 욕망이 주제가 된 범죄들이 많았는데, 간통혐의로 고발된 뒤 6백만원을 주고 합의한 남자가 50만원만 되돌려 받으려다 입건된 사건도 빼놓을수 없을것 같다。 얼룩진 한 주를 지켜본 사건기자의 수첩들을 한 자리에서 펼쳐본다。

■旅券만이면換錢 문제

▲이번 주의 사회면 톱뉴스는 역시 미화 34만달러의 밀반출 기도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의 특종거사이기도 하다。 공항당국자의 말을 빌면 국제공항 개설이래 최고액수의 달러 밀반출기도사건인데, 이 돈의 소지자가 우리돈으로 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선뜻 포기해버린데 관심이 쏠리고있다。

또 단순한 재산 밀반출이냐, 밀수자금이냐 하는것이고 이런 거액의 외화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느냐가 의문점으로 남는다。

그간의 수사를 정약해보면, 거액의 외화를 도피시키려는 방법이 서툴렀음을 알수있다。 기상천외의 눈속이는 방법을 동원하는게 상례인데 세개의 트렁크를 검사기에 올려놓으면서 세관원의 방심을 사려고 빈 트렁크를 맨앞에 놓았었다는 것 뿐이다。

이런 허술한 방법으로 외화를 빼돌리는 길은 세관원과 사전 약속에 의한 길뿐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낳는다。

그러나 세관측은 『거액의 외화도피를 눈감을 세관원은 없다』고 장담하고 있으니까, 문제의 도피범은 재산도피자가 아니라 밀수대금운반자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발생한뒤 수사를 펴온 경찰측은 「잡을수도 있었다」는 표현이다。 달러를 발견하면서 즉각 가방주인을 찾았거나 통과시킨후 가방주인을 잡는 방법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람」중심 경찰과 「물건」중심 세관 34만달러사건 놓고 異見

하지만 세관측으로 서는 『검사대 주변이 붐볐고 단체승객들이 많았다』면서 개개인 확인이 어려웠다는 항변이라서 두 이견은 사람중심의 「경찰」과 물건중심의 「세관」의 감각차이를 느끼게 한다。

다음으로 궁금한것은 34만달러를 어떤 방법으로 바꿨을까 하는 점이다。 국내 암달러시장에서는 일정액이상의 달러를 바꿔갈 경우 당국에 신고된다。 물론 그 암시장과 평소부터 줄이 닿아있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튼튼한 줄과 연결되는 브로커만 잡으면 2~3명의 도매상급 암달러상이 여러명의 소매상으로부터 많은 달러를 모을수 있으니까 이번의 사건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달러를 환전해간 루트를 캐내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최선일것같다。

이밖에 여권만 가져가면 달러나 수표를 바꿔주는 은행제도도 문제다。 변조한 여권, 도난·분실된 여권을 가지고와도 은행에선 사람의 신원확인 의무가 없다。 여권만 가져오면 일정액까지 무조건 환전해줄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여권 발급때까지의 신원확인절차가 까다로운 나라도 없으니까 은행측이 다시 신원을 확인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행자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소지자의 서명(사인)마저 무시되기까지 하니까 숱한 대리발급 사례가 무리없이 소통되고 있는게 실정이다。

이같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개인과 은행이 결탁된다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때문에 규정이나 제도에 앞서 은행창구의 사려깊은 운용이 필요할 것같다。

<삽화·權大雄>

■張여인 사례비 말썽

▲張玲子 여인집에 들었던 도둑을 잡아준뒤 사례금을 받았던 경찰관 8명이 지난 12일자로 의원면직됐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5월19일 새벽2시께 서울강남구청담동2구58의2 張여인 집에 복면한 3인조 강도가 들어 張여인부부등 가족5명을 이발용 면도칼로 위협, 손발을 묶은뒤 2·3캐럿짜리 물방울무늬 다이어반지, 롤렉스손목시계, 현금등 1억원어치의 금품을 털어간 것이다。

사건이 나자 강남서는 강력반형사들을 풀어 끈질긴 수사를 벌인끝에 9개월만인 지난2월3일 3인조중의 1명인 오충석(31·전과6범)을 검거, 4천여만원어치의 물품을 되돌려 받게 했었다。

張여인은 이 사건이 해결된 한참뒤에 강남서직원들을 집으로 초대, 간단한 인사라면서 봉투를 1개씩 돌렸는데 열어보니 1인당 50만원씩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어음사기사건을 마무리하던 지난10일께 밝혀지자 검찰측은 시경에 통보, 관련경찰관들을 자체처리하도록 했고 시경은 이들을 차례로 환문, 검찰통보를 확인하고 이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쓰도록 종용했던것이다。

이에대해 관련자들은 『경찰관이 사례비에 약한 원인은 낮은 봉급, 부족한 수사비, 고된 업무등 구조적인데 원인이 있는데 사건이 터지면 도려내기만 한다』면서 파면시키면 파면취소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치기도했다。

간통혐의 합의료 꿔다가 망신

"경찰 사례비에 약해"論戰

金泰淸변호사는 『공무원의 사례금수수행위는 법에 얽매이기보다 사회통념에 비춰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해 징계가 가혹하다는 주장이었고, 서울법대 姜求眞교수는 『경찰이 강도를 잡는일은 직무이기때문에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고 사례금을 받을수 없다』고 톤을 높였다。 결국 강남서 경무과장 김종열경정은 사표제출을 거부 파면조치됐고, 청담파출소장 박성수경사, 수사과 형사2반장직무대리 목영만경사등 기타 관련경찰관 7명은 12일자로 의원면직됐다。

처녀 셋 몸·돈 뺏고 자다 잡힌 10代

▲한 방에서 잠자던 여자 3명을 차례로 욕보인뒤 돈까지 빼앗았던 10대 한명이 강도및 강간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16일 李모군(19·무직·서울木洞)은 서울당산동3가 李모씨(50)집 부엌에서 식칼과 과일칼을 들고 전날밤에 세들어사는 李모양(20·음식점종업원)방에 들어가 李양에게 놀러온 金모양(20·음식점종업원)과 또다른 金모양(21·회사원)등 2명을 위협, 스타킹으로 서로의 손발을 묶게하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후 차례로 욕을 보였다는것。

李군은 또 이뒤 외출에서 돌아온 방주인 李모양도 같은 수법으로 욕을 보인후 이들에게서 현금 2만여원까지 빼앗은뒤 달아나지않고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묶인 몸을 푼 金양이 방을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힌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李군은 이 집에 처녀들이 살고 있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왜 도망가지않고 잠을 잤느냐는 질문에 『피곤해서 눈을 붙인다는게 그렇게 됐다』고 털어 놓더라는것。

한국일보 事件기자 수첩

■南光土建 협박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남광토건회사 회장인 배정일씨(63·서울용산구효창동5의606)에게 두번씩이나 협박편지를 보낸 呂永實씨(26·경기도 파주군 금촌면 금촌리산7)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呂씨는 지난달 11일 裵회장에게 『27년전의 체불임금 32만5천원(당시화폐)의 댓가로 현금 2천만원을 5월14일 하오6시10분 서울역발 성북역행 교외선 열차의 마지막객차 출입문입구에 갖다놓지 않으면 일가족을 몰살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냈었다。

呂씨는 첫번째 편지가 실패하자 지난달26일 두번째로 『현금 2천만원을 6월9일 하오5시경까지 남광토건 지하다방으로 갖고오라』고 협박, 자신은 나타나지않고 구두닦이를 하는 하수인 최국현씨(25·주거부정)를 현장에 보내 돈을 건네받으려다 잠복했던 경찰에 검거됐다。

범인 呂는 남광토건에서 잡급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지난봄 그만두었으며 하수인 崔씨는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넘어갔다고。

中2생 캠핑경비위해 TV수사극 흉내 이웃에 협박편지

▲서울 강서경찰서는 친구들과 캠핑갈 경비를 마련하려고 TV수사극을 흉내내 이웃집에 협박편지를 보냈던 서울시내 M중학교 2년생 李모군(13)을 공갈혐의로 입건했다。

李군은 여름방학때 해수욕장으로 캠핑을 갈 계획을 세웠으나 부모들이 승낙도 않고 여행비도 줄것같지않자 김성수씨(25·운수업·강서구화곡동886의1)집에다 편지를 내 10일하오 6시까지 화곡동885의9에 있는 빈집 담장밑에 현금 2만원을 묻어놓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협박편지에 지정된 장소에서 잠복했다가 李군을 붙잡았는데 『TV에서도 그런식으로 협박편지를 내니까 돈을 묻었다』고 태연스럽게 말해 경찰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서울지검수사과는 카바레영업장 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尹範求씨(35·동진금속대표·서울시종로구부암동186의1)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尹씨는 서울시보사국장을 안다면서 이규만씨(46·여·서대문구홍은동397)에게 동대문구장안동255에 있는 우성빌딩5층에 전평 5백평짜리 카바레영업허가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8월부터 10월24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3천2백10만원을 교제비등의 명목으로 받아썼다는 것。

▲청주지검 제천지청관내에서는 야릇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16일 제천지청에 의해 무고혐의로 구속된 曺政熙씨(41·서울강동구잠실동35 주공아파트315동117호)가 문제의 인물。

曺씨는 지난해 11월20일께 충북단양군가곡면 趙모씨(31)의 처 權모씨(30)와 간통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6백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소 취하로 풀려났었는데。

그후 본전생각이 났던지 曺씨는 지난 4월20일 낮12시께 權여인을 찾아가 50만원만 돌려줄것을 요구했다는것。 權여인이 지난일을 다시 거론하면 되느냐며 거절하자 曺씨는 화를 내며 돌아나온후 『權여인이 호미로 내얼굴을 찍어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고속버스운전사가 하반신마비로 위기일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직행버스 운전사의 하반신마비로 위기일발을 겪은 지방화제。

지난 14일하오4시30분께 승객45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진주로 가던 Y여객소속 경남5아3852호 직행버스가 함안군 군북면앞 남해고속도로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지그재그로 달리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어쩔줄 몰라 비명만 지르는 위기에 처해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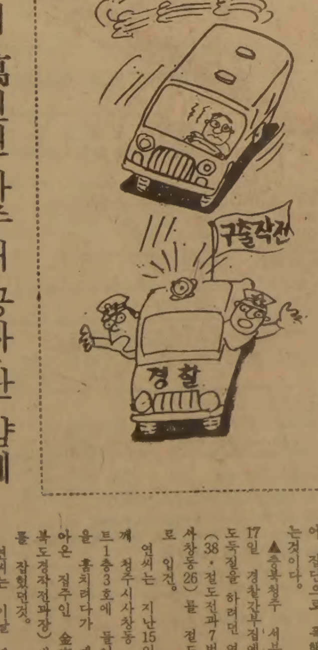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고속도로기동순찰대 제6지구대소속 김용추순경(40)과 최창원순경(29)이 이를 발견, 마주오던 차량들을 정지, 대피시키는 한편 버스를 따라가면서 안전운행을 유도, 2㎞를 지난 오르막에서 가까스로 버스를 멈추는데 성공했다。

운전사 고수영씨(55)는 고혈압증세로 하반신이 마비돼 본의아니게 큰 사고를 저지를뻔 했던것인데 金순경은 자신이 직접 버스를 운전, 승객들을 무사하게 진주까지 데려다 주었고 운전사를 순찰차로 긴급후송, 병원에 입원시켜 승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폭행戰警隊員 놔줘빈축

시내버스서 萬원권 자주내 공짜 탄 얌체

"교도소 가면 병 고쳐준다"에 강도예비음모한 환자도



▲강남경찰서는 안내양을 때린 金明順씨(32·파출부·서울강서구신정4동9의16)를 즉심에 넘겼다。

金씨는 지난15일하오8시께 서울6사2056호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용산역앞에서 요금으로 1만원권을 내자 안내원 崔春分양(22)이 「잔돈으로 달라」고 했다。 이때문에 시비가 벌어지자 金씨는 안내양의 뺨을 때리면서 30분동안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안내원 崔양에 따르면 『지난3월초부터 흑석동에서 매일 버스를 타면서 항상 만원짜리를 내 잔돈을 거슬러 줄수없어 공짜 버스를 타게 했다』면서 얌체승객을 처벌해 달라고 울먹였다。

▲심한 폐병으로 시달리는 젊은이가 병을 고치려고 교도소행을 자초하다 검거된 안스런 사건도 있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6일 柳鐵墓씨(27·부산시동래구거제1동312)를 강도예비음모혐의로 검거했는데…。

경찰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생활난으로 병치료는 물론 생계조차 어려운지라 『교도소에 들어가면 병을 치료해 준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14일밤 11시40분께 남구감만1동 도로에서 깨진병 3개와 전선3m를 신문지에 싸들고 부산1바5225호 택시(운전사 이주도·24)에 탔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운전사 李씨가 이웃 파출소로 넘겼던 것。

柳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듣기로도 딱한 일이었다。

▲전경대원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이 전경대원들은 돌려보내고 피해자들만 연행해 빈축을 샀다。

16일밤 0시40분께 서울성동구 중곡동 296의50 미애인삼찻집에서 술을 마시던 이 동네 洪元一씨(29)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동부경찰서 중곡4동파출소 전경대원 4명으로부터 말다툼끝에 뭇매를 맞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곡3동파출소 경찰관들은 가해자인 전경대원들은 달아나게하고 洪씨와 신고자인 동생 正一군(17), 洪씨의 친구 龍雲씨(26)등 3명만 연행했다는것。

전경대원들은 이날 제대하는 동료의 환송연을 해주려고 초저녁부터 이 찻집에서 술을 마시다 洪씨를「건방지다」며 시비를 걸어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는것이다。

▲충북청주 서부경찰서는 17일 경찰간부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려던 연해명씨(38·절도전과7범·청주시사창동26)를 절도미수혐의로 입건。

연씨는 지난15일하오10시께 청주시사창동 조양아파트1층3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때마침 돌아온 집주인 金文卓씨(충북도경작전과장)에게 덜미를 잡혔던것。

연씨는 이날 제복차림의 金총경에게 붙잡히자 무릎을 꿇고 『무더운 날씨탓으로 높으신 나리댁에 잘못 들어왔다』며 백배사죄。

▲경남 김해경찰서는 李모군(18·진양군)과 申모군(17·창녕군)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부산시동래구거제동 한 세차장에서 일하는 이들 10대소년은 이날 새벽2시께 세차장에 맡겨둔 동신운수소속 부산7아6233호 2·5t 트럭을 훔쳐 부마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 진영터널입구에서 고속순찰대의 불심검문으로 붙들렸다。

경찰에 잡혀온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 우리가 번돈으로 산 차라고 으시대려고 한 짓』이라고。

<기록·정리 姜升求기자>

海外토픽

한국夫婦 최초의 시험관 아기

한국인 부부를 통한 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출산한 李秀姬씨(33)가 크리스틴·영·이양을 안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디컬센터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미국에서 3번째의 시험관 아기로 아빠는 재미동포 李동기씨(38)。 아기의 체중은 3·8㎏으로 南加州大 산부인과 시험관아기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한국일보 LA支社 朴世勳기자 찍음>

印度北部의 공처가들 男便단합大會로 異彩

인도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칸푸르 마을의 공처가들은『마누라의 등쌀을 벗어나 남성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단합대회를 열어 이채。 이들 공처가는「약한 남성」이 겪어야 하는 문젯점들을 서로 논의, 공처가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 남편들을 위한 대책기구를 결성했다。 【AFP】

파열된性器 완전복원, 복부·발바닥筋肉이식

11세된 아르헨티나 소년이 복부와 발바닥근육을 파열된 성기에 이식하는 사상 초유의 외과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그 기능을 완전히 회생하게 되었다고。

아르헨티나 서부의 멘도사에 사는 이 소년은 트럭바퀴에 깔려 그의 성기와 오른쪽 고환이 파열되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의 배려로 미국 이스턴·버지니아 의과대학 수술팀의 수술을 받아 성기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졌다。 【UPI】

毒蛇가 茶주전자에침입 할머니·어린이등 넷 慘變

아침식사때 차를 마신 3명의 어린이와 할머니가 숨진 사건이 최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발생,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결과 범인은 한마리의 독사로 밝혀졌다고。

숨진 할머니는 주전자에 끓인 물로 차를 만들어 3명의 손자들과 나눠 마셨는데 전날 밤 이 주전자안에 독사 한마리가 기어들어간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것。

경찰은 물이 끓을때 주전자안에 있던 독사의 독액주머니가 터지면서 독이 물에 용해되어 이같은 참사가 빚어졌다고 설명。 【共】

電話 7천통화걸어 괴롭혀, 질투심못견딘女人 戀敵에

戀敵을 괴롭히기 위해 1년동안 7천여통의 전화를 걸어댄 한 질투심많은 일본여인이 체포됐다고 오오사까 경찰이 15일 발표。

올해 37세의 야스다·아야꼬라는 이 여인은 6년동안이나 사귀어오던 20년연상의 한 회사중역이 1년전부터 42살난 스낵바 여주인과 가깝게 지내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작년 4월부터 밤낮을 가리지않고 스낵바에 익명의 전화를 걸어대다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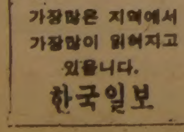
이때문에 스낵바 여주인은 두달간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위장장애를 일으켜 사랑의 댓가를 톡톡히 치렀다고。 【共】

군중이 犯罪者 린치…印度에서 11명 打殺

성난 군중이 범죄혐의자 11명에 린치를 가해 타살한 사건이 최근 인도 서 벵골주의 두 마을에서 발생。 이중 탐푸르마을에서 린치를 당한 6명은 나중에 경찰이 쫓고 있던 악독가의 인물들임이 판명되었다고。 그러나 조라이마을에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죽음을 당한 5명은 1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었다는것。 【共】

日에 최고령 소매치기, 철창 30년에 또 쇠고랑

일본 최고령의 소매치기로 알려진 한 노인이 최근 또다시 술독하다가 쇠고랑。 구니가미·구니조라는 금년 86세의 이 노인은 도오꾜의 한 백화점에서 어느 가정주부의 쇼핑백속에 있던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돼 또 유치장에 끌려왔다고。 그런데 이 노인은 지난 1910년 소매치기의 길에 들어선 이래 그동안 제버릇 개주지 못하고 32번이나 경찰에 붙잡혀 30년4개월동안 철창신세를 졌다나。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운동구점

브램튼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회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배 호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보트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7－5830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영두·이전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전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저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자통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면,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지령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한국요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여자분) 구함.
전화 : 537－0432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다른차에서 안나가실때 나와 주세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햄버거식당 동업자 구함.
8월1일부터 확장계획임. 23 Helen St. Missi.
주중 9:00a.m.~18:00p.m. 전화 : 274－7010 (Mr. You)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20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여름학생 1명
영문타자에 능숙한 학생을 1개월기한으로 고용함
근무처: 외환은행 본점. 전화: 364－2890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단, 경험자 한함)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임.
전화 : 534－8121 (Dennis)

가정에서 봉재일 하실분 연락바람.
전화 : 531－1046

Part Time (시간당 $7.00)
전축일에 취미있으신 신체 건장한 35세 전후의
남자분 구 함. 전화 : 249－0003

입주하셔서 애기 보아주실 분 구함.
(월 $600지불) Jane & Weston
전화 : 447－1460 세시 이후에 연락바람.
(1살· 4살)

구직

스토아 매니저.
경험있으며 성실하게 일해 드리겠음.
전화 : 466－4578 Mr. 정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533－7923
Y.M.C.A. .... 536－1166
외환은행 ....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 533－8593
한일은행 ....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 532－2727
무역진흥공사 .... 977－8784
동 우 회 .... 261－2917
캐나다체육회 .... 533－9336
한인신용조합 ....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매매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7,000이상, 리스: 2년+5년.
렌트 : $600, 아스킹 : $98,000+스탁(All Cash)
꼭 관심있으신 분만 내방바람. 전화 : 767－0762

Variety & Milk Store 매매.
리스 : 10년+Negotiation, 렌트 : $350, 주매상 : $3,000 (계속상승)
1층 살림집을 Rent할 수 있음. 전화 : 757－6458 (Mr. 박)

Variety Store 매매 (다운타운 지역)
주매상 : $5,000, 렌트 : $995(4 Bed Room 포함)
리스: 8년+5년 전화 : 463－4846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 + 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 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 요망(주중 9:00a.m.~18:00p.m.)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 $4,500 + 로타리오(3 Bed Room포함)
리스 : 8년 전화 : 421－5151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Variety Store Special!
위치: Oshawa Main St. 렌트: $700(3 Bed Rm House포함)
넓이: 1250 sq.ft. 주매상: $4,000. 리스: 6년.
가격: $39,000+스탁. 9 door walk－in cooler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Tel: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남아있음.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고급 Van.(81년 G.M.C.) 팝니다.(Still Warranty)
내부 완전히 꾸며져 있음(소파, Bed, 탁자, 카페트등)
13,000 Km. 전화 : 862－1623(오전) 694－9399(저녁)

Duplex House for Sale (Georgetown)
가격 : $56,000, 다운페이 : $6,000, 모개지 Hold해줄수 있음.
Royal City Realty, Ltd. 전화 : 846－0800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로타리오와 Vedeo머신에서 월 1,500불 수입.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Donut Shop 매매 (Downtown 지역)
주매상 : $5,500~$6,000. 순이익 : $6,500이상(M.) 리스 : 17년
아스킹 : $20만. 다운페이 : $9만. 전화 : 977－2299(Mr. 최)

성업중인 선물가게 건물포함 매매.
Bloor 중심가에 있음. 663 Bloor St. W
꼭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월.화.수(9 a.m~7 p.m) 목.금(9 a.m~9 p.m)
토(9 a.m~5 p.m) Alfredo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매매 (2804 Dundas St. W.)
주매상 : $3,000 렌트 : $650 (살림집포함)
리스 : 5년 꼭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Mrs.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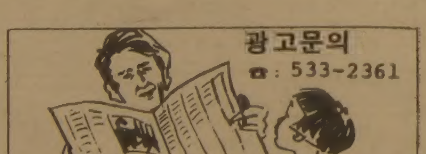
아파트렌트

Sublet (1 Bed Room: 3개월간 Rent도 가함)
$280 + 하이드로(M.) Oldmill Subway에서 T.T.C로 10분거리
전화 : 231－9701 Mrs. Kim (6시반 이후 연락바람)

집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셋방 있음 (1 Bed Rm + Kitchen)
$200/m.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문의시간 : 오후 1:00~오후 9:00(일요일도 가함)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열)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소식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희소식!

한인식품 구매주식회사

사은대매출

희소식!

기간 : 82년6월25일～82년12월25일까지 6개월간

금번 저희 한인식품구매주식회사 설립기념 스페샬 세일과 아울러 지난 6월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사의 "영수증과 상품의 무료교환"은 각식품점별 (삼복, 제일, 한밭, 서울동부, 서울서부지점)로 실시하오니 영수증 발행 식품점 에서만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D.Y. 가주미

CASH REGISTER TAPE
(영수증) 모아오세요.

사뽀로 라면
1 Box

D.Y. 참기름

영수증과 교환

400달러 영수증에 -------- 50Lb 쌀 1포
300달러 영수증에 -------- 가도야참기름 1Gal —1캔
200달러 영수증에는 -------- 일본라면 24봉 1BOX

SPECIAL 품목

쌀	50Lb	15.95	~~17.95~~
회조개 깐것	2.2 Lb	7.95	~~10.95~~
낙 지	2.2 Lb	7.95	~~9.95~~
사뽀로라면		9.95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밭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동부	291－8317	367 PITFIELD RD.
서울식품 서부	243－9544 (7월1일 개업)	1391 Weston Rd.